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9년 3월 23일 (화) 제734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고영훈 편집장 임승희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F)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학제개편 첫시행 부터 삐그덕

대학당국, "어문계 학과도 도입 논의 중"

학제개편에 따라 상경·경상계열의 학부제시행이 예상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당국이 어문계 학과에도 학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강 후 각 단과대 학장들은 학제개편위원회에서 보고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이미 학부제 시행여부를 검토했다. 이와 관련 학제개편위원회위원장 오한진(독일어) 용인배움터 부총장은 "학부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권장 사항이나 어문계 학과의 경우, 특성상 학부제 시행은 무리다. 따라서 단과대 정원의 80~90%는 전공학과제로 모집하고, 나머지는 전공학과 자유선택계열로 모집한 후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라며 "상위권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신동헌(동구·헝가리어 4)군은 "어문학과의 학부제 시행은 각각의 어문학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지역적 연계성만을 내세운 짜집기"라고 비난하며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학부제 시행도 문제지만 정부지원을 내세워 학부제 시행을 강요하는 교육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상경·경상계열 통폐합에 대해 경상대 학생들은 지난 18일(목)에 총학생회가 주관한 '등록금삭감을 위한 학내집회'에서 '학부제 시행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19일(금)에는 경상대 학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학내·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총학생회 또한 18일(목) 총장면담과 정에서 "학제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학제개편위원회에 구조자체의 문제"라며 "학제개편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 배움터 상경대 학생회에서도 학부제에 관한 비상학생총회를 지난 17일(수)에 사회과학관에서 개최했다. 80여명이 참가한 이날 비상학생총회에서 상경대학생회장 구준회(무역 4)군과 각 과 학생회장들은 그 동안의 사건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부제 시행에 반대하는 의지를 밝혔다.

상경대는 또한 다음날 오후 6시경 노천극장에서 '그들만의 학제개편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라는 주제 아래 집회를 열고 새내기 문화제와 함께 학부제시행을 풍자한 집체극 등의 행사를 마련했다. 이 날 집회에는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100여명 이상이 참가해 학부제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상경대 학생회장 구준회(무역 4)군은 학부제 실시와 관련 "아무런 준비없이 계열제를 실시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다시 졸속적인 학부제를 시행한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며 "단순히 학제개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외대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재석·우혜나 기자

'그들만의 학제개편,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라는 제목아래 학제개편 반대집회가 지난 18일(목)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80여명의 상경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상경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학제개편에 대한 강한 반대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정효정 기자

'등록금 삭감' 의지 없다

대학당국, 민주납부 해도 미등록 제적 사유 해당

대학당국은 기성회비를 제외한 등록금을 총학생회에 민주납부하는 것이 미등록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15일(월)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학생신분보장을 위해 공탁 이외에 '학생신분보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학당국은 "총학생회가 '민주납부'라는 명목으로 총학생회 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청하는 행위는 학교규정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총학생회 주장과는 달리 학교 기성회는 실제 존재하고 활동하는 상설기구이며 그 곳에서 책정된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하여 고지·납부토록한 학교당국의 조치는 적법한 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용인 배움터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동국(자연·환경 4)군은 "2월 중순까지만도 해도 없었던 기성회장이 불과 보름전에 직위하는 것은 대학당국의 술책임이 분명하다"며 "또 등록금납부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민주납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을 제적시키겠다는 것은 반교육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학당국의 발표에 따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들은 지난 18일(목) 총장면담에서 민주납부의 정당성을 밝히며 '제적결의서'를 전달했다.

또 같은 날(18일) 교양관 로비에서는 600여명의 학생들이 학내집회를 열고 △등록금삭감 △학부제 시행반대 △학생의견에 기반한 용인배움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용인배움터 정기학생총회가 오는 26일(목) 노천극장에서 '등록금삭감투쟁'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다. 우혜나 기자

서총련·동총련 대의원대회 성사

서울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동총련)은 지난 17일(수) 한양대에서 '12기 동총련 전체 정기대의원 대회(대대회)'를 개최했다.

동총련 대의원 40여명을 비롯, 각 학교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대회를 통해 동총련은 임시체계에서 본체계로 전환, 외대를 비롯한 서울 동부지구 8단학생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이날 의장으로 당선된 정재원(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군은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제국주의의 탄압이 그 어느때보다 광폭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들, 학우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라며 "언제나 조국과 민중을 위해 '다바쳐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이현수(사회·신방 4)군은 동총련 지구상임위원으로 인준됐다.

동총련을 시발로 각 지구총련이 대의원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22일(월) 한양대에서는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이 '18차 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대회는 정권의 협박과 탄압으로 예정보다 이른 22일 0시부터 당일 아침까지 진행됐다. 공권력은 밤새 한양대를 원천봉쇄하고 병력을 증강시키며 침탈위협을 자행했고, 교문을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동을 저지하려는 학생들과 전투경찰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고인원을 제외한 184명의 대의원 중 138명의 참석으로 성사된 이번 대대회는 △의장선출 △총노선 토론및 인준 △결의문 채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99년 서총련을 이끌어갈 의장선출은 경선으로 진행됐으며, 이성희(12기 서총련 임시의장, 홍익대 총학생회장)군이 여준호(경희대 총학생회장)군을 상대로 53%의 지지를을 얻어 12기 서총련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성희 의장은 당선직후 "온갖 억압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민중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다. 역사의 정방향에서 내달려온 서총련의 모습답게 민중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당선결의를 밝혔다.

한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 산하 평양시 학생위원회는 서총련 대대회를 축하하는 서신을 통해 "대의원대회에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라며 "이번 대의원대회는 반통일세력들의 탄압책동을 과감히 물리치고, 12기 서총련이 나아갈 방향과 계획을 토의결정하고 의장을 선출하게 되는 것으로 하여 100만 청년학생들의 구심체 한총련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8면으로 이어짐)

김겸신 기자

변사자 염왕의 부름

▲유~세~차

기묘년 모월 모일에 저승국 염왕은 한반도 남쪽을 제(祭)하노라. 본 염왕이 일찍이 동반의 반도국을 아껴오던 터에, 그대 한반도는 반만년의 역사속에서 수 차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제 나라를 지켜내며 세계 곳곳 떨치는 명성이 어느덧 이곳 저승에까지 이르렀기에 내심 기특히 여기던 바라. 그대의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이웃에게 옳는 사람은 이승에서 동방예의지국으로 추앙 받았었고, 지금 저승국에 와 있는 이도 인정하는 바요, 본 염왕조차 격노한 역대 사대매국 독재정권들이 활개를 칠 때 죽음을 각오하고 떨쳐 나선 그대의 기개는 청송받기에 모자람이 없지 않았던가

▲하나, 최근 '한반도 남쪽은 죽었다'는 말이 널리 퍼진 것을 그대는 부인치 못하리라. 본 염왕의 저승명부에 아직 이름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죽음이 회자되는 것은 어찌된 연유에서이겠는가.

제 혈제와 원수지간으로 지내며 남의 나라에 집안 문제를 내맡기는 등 그대의 '자주성의 부재' 때문이 아니겠는가. 얼마 전 북미협상이 타결됐다고 한반도 평화 운운하지만 지금 자네들 머리위로는 미사일을 잔뜩 실은 주한미군의 헬기가 날아다니며, 심지어는 국내 여객기와 충돌하는 일도 벌어져 민중들이 두려움에 치를 떠는 모습들이 자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또한, 일본과의 '한일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을 송두리째 뺏겨 어민들의 생계줄이 끊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해 동북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날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여 민중의 생존을 전쟁참화로 몰아넣고 있는 한반도 위정자들은 방한 한 일본 총리에게 한일어업협상에 대해 일언도 언급하지 않고 깍듯이 대접하기 바쁠 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본 염왕은 일찍부터 흰옷을 즐겨입고 마음씨 넉넉한 그대들의 민중성을 알고 있다. 둘이 아닌 하나의 한반도를 알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로 강국의 침략을 수 차례 받았지만 결코 '국가의 자주성'을 버리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투쟁으로 일궈진 한반도의 역사를 알고 있다. 그대가 다시 동반의 빛나는 자주국으로 스스로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바탕으로 본 염왕은 주한미군을, 일본 군국주의를, 제 민족을 기만하는 위정자들을 염하노라.

상~향

임승희

요즘 세상 들여다보니…

손때묻은 작업현장을 뒤로한채
눈물을 머금는 우리 아버지들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사회안전안 구축,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해라"

우리나라 황금어장의 70%를
일본에 덜컥 내줘
파탄에 빠진 우리어민들
"어민생존과 수산업
보존을 위하여 어민 특별법을
제정하라"

나라의 먹거리를 키우는
농촌 어머니, 아버지
"DJ는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농가부채 해결」
지키란 말이여"

……노동자도, 어민도, 농민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꿉시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지면안내

대학당국 성의없는 예결산 답변서 …… 3면
한 달간 준비한 답변서가 A4용지 2장이라는데…
그 내용은? 뻔하지

일본문화 개방, 가면을 벗겨라 …… 7면
이미 시작된 일본문화 개방, 뒤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회에 걸친 시리즈 첫회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서총련·동총련 대의원대회 …… 8면
서총련대의원대회와 동총련대의원대회가 모두 한양대에서 열리자 성동서 경찰들 혼줄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사평

임

사진부 차장
정효정(인문 철학·2)

사회부 차장
나덕상(사회·신방 2)

대학부 차장
김태경(상경·무역 2)

문화부 차장
김도훈(사회·신방 2)

외대학보

사설

학부제 도입, 기초학문 파괴

교육방식, 교육여건 변화로 극복해야

서울배움터 상경계열과 용인배움터 경상계열이 계열제에서 학부제로의 전환이 예상되면서 '학부제'의 악몽이 되살아 나고 있다.

'학과 통·폐합 정책'과 '계열별 학생모집 및 계열별 교육과정운영(학부제)' 정책은 이미 1972년에 박정희정권이 시행했으나 △인기학과 집중 △소외학과 교수들의 반발 △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소속감 결여 등으로 1985년에 완전히 철회된 실패한 정책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천년을 1년 남겨두고 또 학부제가 우리대학에 서서히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김영삼정권시절인 95년 5·31교육개혁방침에 따라 96학번부터 비어문학과들의 계열·학부별 모집이 시행됐다. 하지만 학부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의 기회와 교양을 증진시킨다'는 허울 속에 미국식 학부제를 그대로 가져와 교육을 통해 장사밑이를 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채 대학생활은 피폐화하기 시작했다.

학부제 실시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들의 삶의 변화는 단순히 '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양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 '과'라는 기본 생활단위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삶과 집단주의 삶의 양태에서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요구가 중심으로 되는 개인주의와 개별주의가 강제되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과 요구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저학년에서 기본 교양을 이수해야 한다는 과중한 수업부담과 더불어서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고민과 생활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학년들은 전공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취직이 잘되는 전공으로 선택하기 위한 제2의 입시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학부제 시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교육내용의 변화이다. 교과과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방식, 교육 여건의 변화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를 포함 각 대학에서는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교육방법의 변화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정권의 강압에 못이겨(정부지원이 유리하다는)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과 함께 오직 경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수학문은 지멸리 사라지고 취업중심으로 가고 있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순수학문의 파괴는 곧 우리 교육의 망함을 뜻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학생회체계의 붕안정이다. 학우들의 대표조직으로 과학생회와 학년학생회를 건설하고 학우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요구를 실현해 왔던 과체계와 달리 학부제는 기본골간체계가 바뀌어 학생회가 전체학생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대표체로 서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식 학부제는 순수학문을 파괴하고 전공을 부실화시키며, 과의 소속감을 결여시켜 우리 교육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부제 시행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를 뛰어넘어 잘못된 교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잘라내고 새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처럼 학부제 제도를 수정·보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학부제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치료는 '학부제 철폐'밖에 없다.

흡산의 소리

도서관 소음문제에 대해

흔하들 대학 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부라고 한다. 이는 그만큼 한 대학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대 도서관을 보면 전혀 심장부라 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부족한 책들, 낡은 책걸상, 이용자들의 부주의 등)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하면 도서관내에서 도저히 조용히 공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도서관 소음문제를 논의할 때에 열람실내에서 삐삐나 핸드폰소리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엠프를 이용한 노천극장 집회와 주말 가지 포함해서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징 소리, 꽹과리 소리, 북소리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가장 크게 도서관에서의 소음을 주는 것은 풍물연습다. 그런 대로 엠프를 이용한 노천극장 집회는 제한 되어있지만 각 과별로, 각 단대 별로, 또는 동아리별로 최소한 30개가 넘는 풍물패들이 각자 따로 따로 나와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오후시간에는 좋아하지도 않는 징 소리, 꽹과리 소리를 들어야 되는 형편이다.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조용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두 세 번 정도 직접 가서 풍물을 연습하는 이들에게 도서관까지 들리는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거의 대답은 도서관까지 이 소리가 들리는 줄 몰랐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연습하면서 나오는 소리들은 도서관 열람실 어느 곳곳에나 들리고 이런 소음들은 책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데도 말이다. 특히 2층 참고열람실은 더 심각하다. 이는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본인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직접 총학생회장에게 건의 해 보았지만 이들 풍물패들의 활동은 학생자치활동이기 때문에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적으면 2명 정도 많아야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조용히 학습할 권리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설립목적은 학문탐구라고 볼 때 시끄러운 소음으로 이런 학문탐구를 방해한다면 이를 인정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도서관에서조차 마음대로 조용히 책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들 풍물패들도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한 학교가 작아서 마땅한 연습공간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타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중에는 일주일에 이틀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나와 연습하기를 요구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한팀이 끝마치면 다른 팀이 나오고 한 팀이 오늘 연습하면 다른 팀은 내일 연습하는 식으로 적어도 오후 5시부터 8시 이후까지 내내 또는 일주일 내내 이들의 소음에서 시달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다.

아무튼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됨으로 인해 조용하게 있는 다수의 학우들이 조용히 학습할 자유도 존중되기를 외대 내에 있는 모든 풍물관계자들과 각종 학생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이다.

이상돈(서양·러시아어 4)

「외대학보를 읽고…」

시대변화 맞춰 달라져야 한다

"DJ 1년… 민중의 원성 높다"

개강하고 처음으로 나온 3월 3일자 〈외대학보〉의 1면 머릿기사다. 4면 "한반도, 전세계 미국화 음모의 선택된 시험장", 8면 "한총련 청와대 진격투쟁 성사", 9면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지난 해 복학해서 〈외대학보〉를 줄곧 읽으면서 '학보가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속으로 새해에는 달라진 학보를 보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하지만 그러한 내 기대는 깡그리 무너졌다.

때로는 일방적 정리해고가 저질러지고 국가보안법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미국의 패권주의가 날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군사 독재정권은 물러나고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는가. 논란이 있지만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박노해씨가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금강산의 뱃길이 열렸다. 또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분단책임론을 '떳떳이' 제기하기도 했다.

변화다. 분명히 세상은 바뀌었고 꾸준히 바뀌고 있다. 대학은 이제 99학번을 맞았다. 아무리 "운동권 68% 당선, 학생운동 건재"(〈외대학보〉98년 11월 30일자)라고 외쳐봤자 대학에서 사상과 이념의 시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 자리는 이제 볼륨댄스, 조PD, 휴대폰이 차지하고 있다. 고생해가며 아무리 열심히 학보를 만들면 뭐하나. 식당 앞에도 학보는 쌓여만 있다. 읽지 않으면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성균관대 당국이 최장집교수에 대한 사상논쟁을 불어일으킨 〈조선일보〉를 비판했다고 〈성대신문〉 배포를 중지시킨 일이 있었다. 대학언론이 건전한 비판 정신조차 빼앗기고 홍보지로 전락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하지만 시대는 이제 대학언론이 스스로 바뀌기를 요구한다.

치열한 고민 뒤에 〈외대학보〉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순배(서양·서반아어 4)

알림 만화부 기자 모집

본보에서는 3면과 9면 만화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만화기자를 모집합니다. 재능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외대학보

취재낙수

의사수렴 아닌 참여보장을

'근조 무역학과'

검은 바탕의 흰 글씨, 분향소… 인문·경상대 건물에 들어서자 진한 향냄새와 함께 이 글씨가 눈에 띤다.

"존경하는 무역학과 교수님들도 이젠, 저희들 곁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무역인의 가슴은 이미 분노와 실망감으로 다 찢어져 버린지 오랩니다. 하지만 우리 무역인은 그 가슴을 부여잡고 말도 안 되는 무역학과의 '폐과'라는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에 이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또 복도에는 '근조 무역학과' 표지가 길게 늘어져 있어 분위기를 더욱 삼엄하게 했다.

18일(목) 등록금 삭감을 위한 학내집회에서도 경상계열 과 학생회장들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집회에 참석했고 이날 학제개편 관련 성명서 발표에서 경상대 학생회장 황덕하(경제 4)군은 "학제개편은 학생의 견 반영 없는 밀실작업이었다. '학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식상한 진리를 알면서도 학교측은 학생들을 마치 실험실의 도구처럼 이 제도에 꿰어 맞추다가 안되면 저 제도에도 맞춰보는 비인간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떤 학사행정을 시행하더라도 학생들의 의사참구는 막혀 있다. 단지 행정절차상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단계를 밟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대학당국은 이번 학제개편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시킨 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이 없는 외대발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의사표출방식에 대해 더이상 "물의를 일으킨다"고 단정짓지 말고 연구단계부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혜나 기자

☆이번주는 지면관계상 3면 취재낙수를 2면에 싣습니다

흡산은 HUFS(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 자격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① 제한 없음 ② 이래 제시한 주제중 찬·반의견
- 매수 200자 원고지 4매
- 마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방법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통신(하이텔, 나우누리(OEDAE), 유니텔(외대학보))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비라는 점을「지난주 외대학보를 읽고…」란에서 받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민술단

국한문 병용 웬말인가

이상준 〈영어과 교수〉

'가장 항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서양의 어느 저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의 가장 항토적인 것들 즉,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면 한글이 첫째로 꼽힐 것이다. 사람은 말로 중추적인 삶을 살고 문화생활에서는 문자생활이 맨 앞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역시 우리의 문자이다. 한글 그 글자를 보아도 눈이 부시고 거기에 맞춘 소리만 들어도 귀가 즐겁다. 그 글자 모양도 좋지만 그 다양성의 효과는 얼마나 큰가! 수십년 전 유네스코 연감에 인류 문자들의 진화에 대한 순서를 밝힌 바 있다. 로마자(영미, 서유럽에서 쓰고 있는 글자)가 가장 진화된 것으로써,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2위에 한글을 올려 놓았다.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끼어들었다. 한글은 동북 아시아 한 쪽 극히 작은 구석에 그것도 북쪽 절반에서만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거에도 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리의 문자를 아직도 업신여기고 국한문 혼용을 무식하고 고집스럽게 부르짖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여 많은 점 들에서 뒤지고 있으나 문자 활동에서 만큼은 단연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 하나로서 조만간 일단 일본이 완전 표음문자화의 혁신을 단행하지 않는 한 선진국가로서 일본을 앞서 나갈 수 있다. 일본의 대도시들에 걸쳐 있는 간판들이나 일본 관공서들의 표지판들과 문서들에 한자를 전용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초급속의 정보화시대에 비추어 보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지금까지 얼핏 살펴본 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국한문혼용의 시대가 지금까지 질질 끌려온 것은 가장 큰 이유로서 비교적 선진된 일본이 한문을 숭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일본이 지금이라도 그들의 표음문자를 혁신 개발하여 원시문자인 한자를 버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국한문혼용을 부르짖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혼용이라는 말만 살짝 바꿔 국한문 병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특히 한글 세대의 탄탄한 진로를 가로막는 웬위이기에 개탄스러움을 넘어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나라나 누구나 정보화 시대에 살지 않으면 않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에 앞맞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은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보급 받는 일이다. 그것은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 문자를 매개로 하는 가장 큰 생활방식은 전산통신이다. 한글은 분석과 조합의 가장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전산통신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자는 일일이 외워야 하고 쓸데마다 기억해 내야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키보드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다시 일일이 불러내어 끼어넣기 식으로만 사용될 수 밖에 없어서 그것은 아무리 우대한다 할지라도 보조적인 것이야지 한글과 병용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국한문병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간신히 한글 전용화의 터전을 닦는 데에 기울인 그 엄청난 노력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최대 최고의 생산력과 창의력이 모든 분야들에서 퇴보로 향해 치닫을 것이다.

"타다 남은 나무는
숯으로도 쓸 수 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

총장님은 평양외대와의 학술교류협정으로 곧 방북을 추진하고
외대학보 기자들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학술교류와 방북취재, 그을린채 꺼져버린
나무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대학당국 예결산 답변서 분석

개혁없는 예결산 책정 언제까지

서울 총학생회가 제기한 예결산 개선 방안에 대한 학교측답변이 지난 17일(수) 공개되었다. 그러나 한 달여를 끌어오던 답변의 분량이 적고 내용 역시 불성실해 총학생회측은 학교측에 재답변을 요청했다.

답변서에서 모순되는 점은 법인전입금에서부터 나타난다. 현재 우리학교의 법인 전입금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대학당국은 이에 대해 98년 학내사태와 관련하여 전입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재단전입금은 그 이전에도 미미할 정도로 적었다. 또한 작년의 학내 사태로 인하여 재단전입금이 줄어들었다는 설명 역시 토지나 건물 등의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는 재단전입금이 그로 인해 줄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재단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당한 박승준에 대한 환수조치도 있어야 한다. 박승준이 그 동안 횡령한 돈은 공개된 것만 최소한 18억이 넘고 밝혀지지 않을 것까지 더할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측이 서울과 용인을 구분하여 자금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부분은 작년 재단투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3.30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인 만큼 학교측은 단순히 어렵다고만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유를 들어야 했다.

문제는 대학이 학생을 배려했다고 하는 부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학측은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경비를 동결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의 총예산 역시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경비를 동결시킨 것은 그다지 학생을 배려했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학교의 연구실습비는 전국에서도 최하위 집단에 속한다고 한다.(표 참조) 이 같은 현상은 아무리 우리 학교가 어문학 중심대학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구실습비 등의 학생경비는 동결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어야 했을 상황이다.

전국 182개 대학중 연구실습비 최하위 10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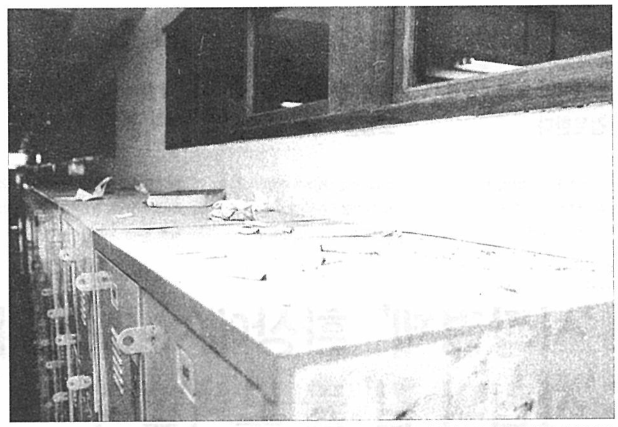
대학명	총예산	실험실습비	비율
경주대학교	6,089,932	50,000	0.82
총신대학교	7,985,868	64,287	0.81
여수수산대학교	19,082,953	141,289	0.74
한국해양대학교	24,625,976	178,820	0.73
한국외국어대학교	55,788,000	390,000	0.70
전주대학교	35,326,006	234,541	0.66
동양공과대학교	5,357,362	35,000	0.65
한성대학교	14,329,584	92,120	0.64
목표해양대학교	10,501,024	66,700	0.64
협성대학교	11,618,654	64,400	0.55

또한 등록금 역시 경제난 속에서 동결한 것을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는 이미 지난 몇 년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실시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금액이 학교에 남아있는 이상 지금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 등록금 동결보다는 등록금 인하도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학교측의 답변에는 이와 같은 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도 예결산위원회에 학생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학교의 예결산 세부공개 등의 질의에 대해서도 너무 간단한 몇 마디의 문장으로 대신 한 달이나 걸린 준비기간에 비해 너무 졸속적이라는 비판이다.

학교측의 이번 원칙적이면서도 성의없어 보이는 대답은 작년의 재단투쟁에 승리해 개혁을 한창 진행중인 학교의 흐름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예결산 문제는 학교의 자금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히 논의해 학생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류재석 기자



저 높은 쓰레기통? 사물함위에 담배 꽁초, 종이컵, 책, 종이등의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있다. 학생들은 엄연히 쓰레기통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사물함위에 버리고 있다. 때문에 청소하는 직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정효정 기자

만나 보기 – '학부제 반대 투쟁' 에 동참한 경상대 학생회장 황덕하(경제 4)군

"학제개편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정효정 기자

경상계열의 학부제 시행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학생들은 학부제 시행을 논의할 수 있는 학제개편위원회조차 참여하지 못했다.

학교측은 학생들을 학제개편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뿐 학제개편의 주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학교측은 학부제 시행 이유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편'으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대, 고려대 등의 일부 명문대에서 학부제를 실시하니 우리학교도 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학교마다 처지와 실정이 있듯 우리학교는 외국학의 특성을 살려 경상계열에 유리한 교과개편을 해야한다.

대학당국이 학과 통폐합으로 무역학과를 없애려 하는데

무역학과의 국제경제분야를 경제학과가 흡수 통합한다는 말이다. 학교측은 학과간의 성적불균등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대안은 흡수통합이 아니다. 3학과를 유지, 존속시키면서 재정확충, 교수충원, 각 학과 교육내용 연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정부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학교측의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한 대학당국과의 논의 결과는

처음에는 교수들이 먼저 논의한 후, 교무위원회에 올려 결정된 사안을 대학운영위원회(대학평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심의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점점 우리 학생들의 '학부제 반대' 요구가 커지자 '학생들이 반대하는데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도 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지 학부제시행에 대해 4월 교육부 입시요강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다.

앞으로의 학부제 반대 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가

-당장이라도 시행 할 듯한 학부제를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 막아냈다는 점을 성과로 여긴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 학과발전 연구기관을 설치, 과학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학교측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 이번 경상계열 학부제 문제는 전체학과 학부제시행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염두해 모든 학과 학생들과 연대하여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혜나 기자

교육개혁 5개년계획분석 ①

엘리트 위주 교육 안된다

연구중심대학 · 지역거점대학 집중육성키로

정부는 지난 11일 교육개혁 5개년 시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 중 대학부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학마다 대학이사회가 만들어지고 정부의 대학평가 강화를 위해 가칭 '한국대학평가원'이 설립되며 소수의 연구중심 대학과 지역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중심대학 설립과 지역거점대학설립 계획은 몇 년 전에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한 5·31교육개혁과 비교해 볼때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아 몇 해가 가도 변화없는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비록 공청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54만부의 교육정책시안 자료집을 배포해 여러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지만,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닌 시안이 만들어진 후에야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졌던 교육부의 정책들을 볼 때 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21C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독자적 지식기술 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의 대학을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중심대학 집중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대학마다 비교적 골고루 나누어 주던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서 소수의 대학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를 위해 만들려고 하는 기관이 바로 가칭 '한국대학평가원'이다. 그렇다면 집중육성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이 집중육성대학에 비해 뒤쳐지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대학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욱 격화시킬뿐이다.

지역거점육성대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지역거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의 대학은 그만큼 피폐해질 수 밖에 없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연,학연이 뿌리깊은 사회에서 이같은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들은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육성되지 못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역시 결국은 사회에서 활동하게 마련이고 이 점을 생각한다면 몇 대학만 집중육성하는 기형적인 방식보다는 많은 대학에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류재석기자

외대 홍보학생도우미, 홍보모델 모집

홍보실에서는 입시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기사발굴 및 일간지 등에 학교이미지 광고시 적극성을 기하기 위해 「외대 홍보학생도우미, 홍보모델(가칭)」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활동사항
   가) 홍보학생도우미 - 「외대소식」과 각종 입시홍보물의 제작에 참여
   나) 홍보모델 - 일간지 이미지 광고, 각종 홍보책자 모델로 활동
   다) 공통사항 - 교내외 미담사례와 홍보자료발굴 및 홍보업무에 참여
2. 모집대상 : 본교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3. 선발인원 : 홍보학생도우미(학부 5명, 대학원 1명)
   홍보모델 4명(남2명, 여2명)
4. 지원서 배부 및 제출 : 서울 캠퍼스 홍보실
   용인 캠퍼스 학생처 장학계
5. 모집기간 : 3월 22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6. 선발절차 및 일지 (장소 : 서울캠퍼스 본관 108호실)
   가) 홍보학생도우미
   ① 1차 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② 2차 시험 - 논술 및 면접(4월 2일(금) 오후 6시
   나) 홍보모델
   ① 1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② 2차 시험 - 면접 및 실기테스트(4월 3일(토) 오전10시)
7. 합격자 발표 : 「외대학보」, 교내 인터넷 홈페이지, 개별 통보
8. 문의 : 서울캠퍼스 홍보실 전화 961-4053, FAX 969-1319

※ 위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은 학기마다 **근로장학금**과 원고료등이 지급됩니다. 특히 1, 2학년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명칭 공모> 외대의 이미지를 참신하고 발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외대 홍보학생도우미와 홍보모델의 명칭(통합명칭 및 개별 명칭)을 공모합니다. 관심있으신 구성원(교수직원 · 학생)은 3월 30일(화)까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기념품(벽걸이시계)을 제공합니다.
(타대학사례: 서강홍보학생기자, 성대알리미, 중앙사랑, 덕성빛냄이)

1999. 3.

홍 보 실 장

'99 군장학생 모집

(학군, 학사사관)

1. 모집인원 : 1학년(00명), 2학년(00명), 3학년(00명)
2. 지원자격 : 가. 4년제-1학년('77. 10. 1~'83. 10. 1출생자)
   나. 3년제 -2학년('76. 10. 1~'82. 10. 1출생자
   다. 신체검사 결과 3급 이내인자
   라.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 1학년 학기별 평점 B학점 이상인자
   마.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9. 3. 2~3.31(학군단 행정반)
   ▶ 구비서류

1차(지원시)		2차(신체검사)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각1부	·재정보증 관계 서류	1부
·대입수능시험 성적 증명서	1부	·천연색 사진(4×5cm)	4매
·대학 성적 증명서	1부	·신원진술서 A양식	
·복무연장 또는 장기복무 지원서	1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2부		
·학생 종합 생활기록부	1부		
·면접 평가 관련 서류	1부		
·병적 증명서	1부		

4. 선발절차
   ▶ 1차 : 수능성적(40), 대학성적(10), 체력검정(30), 신체검사(합,불)
   ▶ 2차 : 면접20(합,불), 신원조회(합,불)
5. 합격자 발표 : 1999. 8. 12
6. 특전
   ▶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서 제출 부여, 선발시 우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희망 및 전공 고려 병과 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 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7. 문의 전화 : 서울 (02)961-4412, 용인(0335)330-4149

제119 학생군사교육단장

2000 학군사관 후보생(R.O.T.C) 모집

1.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
   ▶ 2년안으로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임관년월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미만인자
   ▶ '75. 3. 1~'81. 3. 1출생자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9. 3. 8~4. 24(학군단 행정반)
   ▶ 구비서류

1차(지원시)		2차(체력검정/면접평가시)
·지원서(학군교 소정양식)	1부	·개인도장, 수험표, 신분증
·서약서	1부	·검정색 볼펜 지참
·대학1학년 및 2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수능 성적 증명서	1부	
·신원진술서(A양식)	1부	
·고교생활 기록부(면접평가용)	1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2부	
(부 사망시 제적등본 제출)	1부	
·천연색 사진(4×5cm)	4매	
·병적 증명서	1부	

＊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제출

4. 선 발
   ▶ 1차 :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체력검정, 적성/면접평가
   ▶ 2차 :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 1999. 11. 20
6. 특 전
   ▶ 희망 및 전공 고려 병과 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 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7. 문의 전화 : 서울 (02)961-4412, 용인(0335)330-4149

제119 학생군사교육단장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검토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동력, 외세의존적이고 민중배제적인 개발독재는 실패했다

2

여러 경제발전 모델을 고찰한다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제발전모델이 현실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4

'자립적 민족경제모델' 고찰을 통해 제3세계 경제의 대안을 모색한다.

제3세계 민족, 민중이 자주화, 세계화의 압박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제발전 노선을 구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5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대안을 모색한다.

총체적 경제 파탄!

그러나 대안은 있다

'시장경제' 환상에서 벗어나 '자립의 길'을 모색한다

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통합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이미 붕괴하였고 제3세계 역시 시장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의 동력으로 불렸던 동아시아도 심각한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환상은 소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인해주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외롭게 휘날리고 있는 멕시코의 치아파스 반군과 고립 속에서 고통받는 사회주의 북한만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시장의 위기, 자유주의의 위기

현재 많은 국가들이 지금의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세계은행, IMF, 미국의 권고와 강압에 의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의 여러가지 경제운영 원리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동유럽의 국가들이 그러하고, 제3세계 국가들이 그러하며, IMF 위기속의 동아시아가 그러하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지속하는 중국도 역시 세계경제와 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로의 편입은 서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한 실업의 증대,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가, 주기적인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혜택의 감소 및 사회적 빈곤층의 증대 등으로 애초 이룩해 놓았던 민주주의 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도상국에는 더욱 심해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대량실업, 인간적 삶의 조건의 악화, 만성적인 인플레션 및 대외 종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2부터 IMF지원을 받았던 멕시코의 오늘이 그것을 증명하며, 브라질의 오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붕괴 후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어졌던 '사회주의 시장경제'도 중국의 작금의 경제위기와 중국내부에서의 점증하는 실업 및 계층분화, 무질서의 도래 등에서 보이듯이 그럴듯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그 자체의 위기도 가져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실패를 예견할 수 있다. 즉,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겼던 시장은 맑스의 지적처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의한 무정부 상태의 도래, 공황의 주기적인 엄습, 그리고 빈익부 부익부 현상과 계급구조의 양극화를 통한 자기 파멸의 길을 걷는다.

자본주의는 맑스의 언명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혁신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었지만, 혁신의 힘을 소진한 다음 단계에서는 더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그토록 옹호했던 슈미터도 자본가들의 창조의 에너지가 소진될때 자본주의는 붕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던 것이다. 또한 월러스틴이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자유주의에 승리를 안겨다 주었지만, 곧바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위기도 가져다 주었다. 점증하는 지구적 규모의 남북대립, 한 국가 내에서의 남북대립(빈곤한자와 부유한자의 대립)의 증가와 사회주의와의 대립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였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위기는 결국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도 함께 몰고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현시대를 시장의 위기와 자유주의 위기의 시대라 명명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를 넘어서, 자유주의를 넘어서

1950-60년대만 하더라도 남미의 브라질이나 멕시코는 곧 선진국이 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후 20-30년이 지난 지금 이들 국가들은 외형적인 선진국화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불안정과 빈곤으로 IMF에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지난 20-30년간 지칠줄 모르는 고속성장을 해왔던 동아시아도 한국을 필두로 하여 태국, 인도네시아가 연쇄적으로 IMF 위기관리체제로 전환하였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위기도 심심치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조건에서 새로운 대안 모델은 경제 논리만으로 찾아질 수는 없다. 우리는 '발전'을 단순히 경제발전(economic growth)만으로 협소화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현재의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전 사회적인(societal)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발전을 경제만으로 한정했던 그간의 관념은 이미 UNo1 1962년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통합을 제의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UN은 발전은 인간의 발전(Human development)이어야 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채택하고 고려해야 할 발전의 길이 경제가 아닌 바로 전체 사회적(Societal)이고, 인간을 위한(for Human) 것임을 알 수 있다.

자기중심적 발전의 길을 위하여… 자립 경제의 문제제기

우리가 채택해야 할 발전의 길이 전체 사회적이고 인간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혁명의 시기가 지나고, 사회주의적 프로젝트가 실패로 규정된 조건에서 과연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이 가능할 것인가? 혹은 현재와 같은 전지구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조그마한 단절이라도 가능한 것일까? 더욱이 한국과 같은 미.일의 종속적 처지에 있는 나라가 단절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칫 내부적인 불안정과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 자립경제란 어찌면 이상향의 추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쟁하느는 자립경제는 염토가 거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거대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 폐쇄적인 자립경제의 모델은 아닐 것이다. 비록 외부의 고립과 사회주의 경제외의 단절이 북한 경제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역으로 외부 경제와의 원활한 연계가 어려운 그와같은 모델은 실현되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자립경제의 이상이 완전히 포기되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아무리 전지구화의 흐름속에서 자본이 국적없이 세계경제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쓰비시는 일본을 대표하고, 현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상이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재벌들을 민족자본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없다. 세계경제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화와 지구화의 와중에서도 미국을 위시한 선진자본주의 진영은 엄청난 '보호무역의 장벽'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린스펀 의장이 NAFTA를 두고서 그것은 '여러 가지 속설과 달리 보호주의적이다'라고 고백하듯이 현재의 세계경제는 결코 차별없는 자유화도, 지구적이지도 않는 '자국이익의 침예한 대립의 장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 자립적 토대를 쌓는 전략이 요구된다. IMF 위기 당시 서구의 저명한 학자인 갈퉁(Galtung)조차도 굳이 한국까지 찾아와서 농업, 에너지, 환경 산업에의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는 바로 한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산업의 우선적인 보장, 내부적 자원의 동원을 통한 발전 전략을 주장하였던 것이다(이러한 그의 조언은 김대중 정부의 거부로 전혀 실현되지도 않았으며, 한국 언론매체에서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북은 미제국주의를 위시한 억압속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의 노선을 구현·발전시키고 있다. 사진은 북한에서 제작돼 국내로 들어온 화차의 모습

이는 최소한의 자립경제적 토대를 쌓는 것이 현재와 같은 세계경제에서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경쟁력도, 장기적인 민족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자립적 경제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첫째로, 제대로 된 국가가 정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었던 '종속적 발전'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다. 카르도소가 주장하듯 '좀 더 나은 국가'가 정립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경제에서의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적 발전, 인간의 발전이라는 총체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산업 발전만이 아니라, 여성, 환경, 노동, 복지가 다 같이 어루어지는 조화로운 발전이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발전의 전제이다.

셋째로, 세계경제에서의 평등한 관계의 수립이다. 현재와 같은 IMF, 세계 은행, 미국의 강압과 요구에 종속적인 위치에서 수동적으로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국제질서속에서의 상호발전의 길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물론, 이와같은 과제는 한 국가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과제가 일국적이면서 동시에 지구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분단된 상황에서의 그것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지금의 위기를 통일한국의 통일된 경제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간의 발전만이 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한다.

우리는 위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델을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모델로서 자기 중심적 발전, 자립경제적 문제제기를 던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발전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성장과 불평등간에는 강한 부(富)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제3세계의 지난 경험들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립적인 발전의 길을 추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인간의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서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주체할 줄 모르는 물질적 풍요속에서 병든 인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견딜만한 물질적 결핍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과 공동체의식이 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논쟁해왔던 개인과 집단의 이분법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이기적 인간(economic man)의 우위로 끝나는 현시점에서, 공동체의 이해와 조화되는 개인의 발전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발전을 최상의 가치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발전, 자립 경제의 토대 구축에서 인간의 힘에 바탕하지 않는 것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미래는 인간의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가 승리한다. 인간의 발전은 더 나은 미래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정영철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대학별곡 제3계명 면학편

소년이 늙기는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운 것이니,
한순간의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히 여기지 말라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明心寶鑑 勸學編)

진리에 대한 탐구-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백년전 옛 성현의 가르침이 새삼 절실합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인생의 기쁨으로 알았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소중한 학창시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학문에 매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진정한 기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공청회-한겨레 국민주신문 위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겨레, 존재의미 상실… '민족자주' 언론 역할 다해야

지난 15일(월) 서울대에서는 한겨레신문 전국독자주주모임,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주언론운동연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영자지기자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운동연합 공동주최로 '한겨레 국민주신문 위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정론직필, 민족자주언론 실현을 위해 창간된 국민주 신문 한겨레가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변질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진정한 언론의 상에 대해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민족자주 언론으로서 자기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한 우리언론의 역할'이라고 입을 모았다. 편집자

'한겨레' 국민주신문 위상 어떻게 찾을 것인가

신맹순〈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 상임대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한겨레신문 위기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겨레'가 국민주신문의 위상을 잃고 또하나의 '제도언론'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주주들을 무시한 파벌경영으로 6만주주가 마련한 독립자본금 200억원을 거의 다 거덜내면서 부채비율이 '조선일보'를 능가하게 되었고, 지면은 민족자주언론으로서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범민련과 한총련 등 민족민주운동은 이 신문 지면에서 철저히 묵살되거나 왜곡되었다. 이에 많은 민족민주운동단체로부터 많은 항의가 잇따랐다.

'말' 99년 2월호는 한겨레 방북취재보도와 관련해 이북의 '통일신보'가 '한겨레21'에 "애초에 북을 사시안으로 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극히 피상적이고 일면적인 관찰과 냉소적 비방으로 일관된 방문기에 경악한다. 이런 글은 민족 앞에 엄중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이 신문의 정체성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겨레〉가 국민주신문으로 바로서려면 먼저 주주 명부를 공개해 6만 주주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자주주들의 조직적 참여 속에 대중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이 신문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주주들의 주권행사를 보장할 합리적인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독자주주운동은 한국언론운동의 지표가 된다.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11기 주총에서 창간정신을 살려 한겨레신문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민족자주언론으로서 자기사명을 다할 수 있는 개혁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족자주언론과 조국통일언론으로 거듭나야

김태훈〈24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사람은 신념, 사상, 의견, 정보,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들을 다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행위는 자유스럽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민중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이 땅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언론악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함께 민중을 대변해야 할 언론이 거꾸로 권력과 자본에 지배당하는 언론소외의 시대인 것이다.

언론은 안이한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와 사회의 주체인 민중의 삶과 주장을 대변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의 품에서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언론이기를 거부하고 민중들의 편에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옳게 대변하고 담아낼 때 비로소 진정한 언론의 자리를 찾을 것이다.

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민주, 민족, 민중언론'을 창간정신으로 삼은 한겨레신문은 다른 제도언론과 달리 외침가 없이 도덕적 정당성과 자부심을 갖고 출발했다.

그러나 창간정신을 올바로 실현하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의 창간정신은 6만주주의 뜻과 의지를 넘어 시대정신이고 4천만 민중의 열원의 반영이었기에 어떤 외풍과 유혹에서 흔들림없이 굳건하게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은 한겨레신문이냐 아니냐를 가를 시금석이다.

한겨레신문은 93년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단 김영삼 정권 때부터 서서히 체제에 순응하는 신문, 점점 권력의 품에 가까워지는 신문으로 전락했다. 김대중정권이 기만적인 '국민의 정부' 간판을 걸고 등장한 후 한겨레신문은 변화한 객관적 주위환경을 말하며 정권의 품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창간정신이 변질되고 자신의 뿌리인 민중들이 등을 돌린다면 한겨레신문은 더이상 한겨레신문으로 존재할 수 없다.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민중의 편에서 창간정신에 따라 정론직필, 진실보도를 다할 때 한겨레신문은 온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책정한 창간기금 50억원을 나라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의 참여로써 이룩하여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되는 신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도언론을 비판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언론의 자유와 민족자주언론을 실천하겠다는 창간이념이 무색할 정도로 변질되고 있는 국민주신문 '한겨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5일(월) '한겨레 국민주신문 위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을 바른 언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각단체들의 공동주체로 개최됐다.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 상임대표 신맹순씨는 "현재 한겨레신문이 국민주신문의 위상을 잃고 또 하나의 제도언론으로 전락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6만 주주에 의해 형성된 자본금 중 49억원을 주총의 의결이나 보고도 없이 '한겨레리빙'에 투자해 적자가 발생했다"며 한겨레 경영진의 경영실책문제도 지적했다.

24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의장 김태훈씨는 "한겨레신문은 국민주주를 무시한 채 파벌경영으로 일관, 조선일보보다 부채율이 높은 상황이며 이는 자본의 독립을 주창한 대중적 정론지로서 물적토대를 와해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김씨는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한겨레가 점점 권력의 틈에 가까워지는 신문으로 전락하더니 심지어 요즘에는 여당지가 됐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한겨레신문의 존재의미를 역설했다.

한겨레신문 주주독자모임에서 요구한 주주명부 공개에 대한 전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최성민씨는 불가능함을 확언했다. 최씨는 "국민을 주주로 모신다는 미명하에 진행됐던 주주운동은 1991년 경영난 해소를 위해 '3차발전기금모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액주주중심으로 육성됐다"며 "이후 독자모임이 점점 내부문제에 관심을 갖자 경영진은 심지어 주주모임을 안기부 프락치라며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87년 6월항쟁의 성과물로서 민족적,역사적 과제에 충실한 참된 언론을 갈망하는 민중의 모금으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이 오히려 제도언론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한겨레 6만 주주와 뜻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겨레' 경영 심판하고 민족자주언론 실현하자.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

제도언론을 비판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한겨레신문은 87년 6월항쟁의 성과물로서 민족적 역사적 과제에 충실한 참된 언론을 갈망하는 민중의 모금으로 88년 5월 15일 창간호를 냈다. 이 신문의 창간이념은 언론의 자유와 민족자주언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한총련이 낸 전면광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가 하면 범민련 광고 접수를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총련은 97년 6월 28일 '한겨레신문 한총련 전면광고 삭제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어 이 신문이 한총련 광고를 접수해 97년 6월 28일자 1판 24면에 전면광고를 실었다고 3, 4판부터 이를 전면삭제한 사실을 비판하고, 광고가 삭제된 과정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면을 통해 공개 해명해줄 것을 한겨레신문에 요구했다.

또 부울전협은 지난 2월 26일 피시통신에 올린 글을 통해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에 맞춰 범민련 부경연합에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내려했지만 이 신문에서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보수우익단체와 정당의 광고뿐만 아니라 민족의 양심에 어긋나는 98년 1월 22일자 22면 일본단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의 '위안부 기금' 전면광고까지 실은 이 신문이 범민련과 한총련 광고에서 보인 행태는 형평에 맞지 않는 반언론적 처사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

> 한국언론의 총체적 개혁을 이루어내려면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는 민중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국민주주들은 그동안 한겨레신문 경영진에 의해 모래알 주주로 방치되고 경영에서 소외돼왔다.

전국독자주주모임은 소액주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상법에 보장된 주주명부의 등사를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경영진은 "한겨레신문이 갖는 사회적 특성상 주주가 자신의 신분노출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이 현존하므로 참간 이해 주주명부를 공개한 바 없으며 본사는 93년 2월 5일 이사회에서 주주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재차 결의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겨레신문의 주인인 주주들을 주주명부조차 등사할 수 없는 외부로 규정하는 경영진의 처사를 용납할 수 있는지 6만주주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경영진은 독자주주운동을 장려하고 도와주기는 커녕 6만 주주의 단결권을 원천봉쇄해온 것이다.

한겨레신문 경영진을 그동안 확대경영을 거듭해 주주들의 정성이 담긴 자본금을 반이나 축내고 1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끌어들여 자립경영의 토대를 크게 위축시켰으며, 경영비리를 비판하며 자정개혁을 촉구한 기자들을 부당해지시켰다. 이런 한겨레신문 지면과 경영비리에 관련된 현 경영진은 퇴진해야 마땅하며, 이 신문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부담하게 축출된 송건호 선생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자정개혁을 외치다 해직된 노향기 편집부위원장과 주총부정비리에 항의해 부득이하게 회사를 떠난 유종필기자, 노조가 부당해고라고 성명했던 광고국 지교철 차장은 지체없이 원상복귀 되어야 한다.

한겨레신문의 자정개혁은 경영진의 퇴진과 부당해직된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온 국민이 주인인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한국 언론의 총체적 개혁을 이루어내려면 이 신문 독자주주들만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는 민족운동단체와 민족자주언론을 열원하는 민중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주주총회는 6만주주가 단결해 경영 지면 비리를 척결하고 조직을 혁신해내는 희망의 광장이어야 한다.

전국독자주주모임이 공청회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비민주적인 정관개정과 경영진 교체 등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절대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야 주주총회에서 창간이념을 복원하고 민족자주언론을 실현할 경영진을 꾸려낼 수 있다.

학술부

학/술/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99-1외대 대학원 사회과학 기획강좌

21세기 희망을 꿈꾸며

제1부 세계정치경제의 현주소와 한국정치의 대안찾기

유럽사회 '제3의길'과 프랑스 조스팽 노선 /3월 30일(화)
- 노대명(파리 2대학 정치학 박사, 현 국민승리 21 정책자문위원
신자유주의와 동북아 경제질서, 그리고 일본의 길 /4월 6일(화)
- 김용복(서울대 정치학 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중국의 길 /4월 15일(목)
- 이희옥(한신대 중국어과 교수)
세계정치경제질서와 미국 /4월 22일(목)
-이삼성(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DJ식 개혁정치' 노선평가와 '대안의 정치' 찾기 /4월 29일(목)
-조현연(외대 정치학 박사, 학술단체협의회 연구위원장)

제2부 한국사회의 현실과 사회학적 전망

지식 재생산과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 /5월 6일(목)
'가족'과 '가족주의', 새로운 모색 /5월 13일(목)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5월 20일(목)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이론과 현실 /5월 27일(목)
새로운 전망: 21세기 대안사회 /6월 3일(목)
-김동춘(한국산업사회학회 연구위원,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제3부 왜 역사정치학인가?

역사정치학의 형성 및 발전 /6월 29일(화)
거시적 미시적 접근방법: 자본주의와 근대국가, 그리고 사건과 개인 /7월 6일(화)
문제중심의 연구와 시공간 분절: 비교역사연구의 사례들 /7월 13일(화)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의 연구전략(1): 구별짓기 또는 따라하기 /7월 20일(화)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의 연구전략(2): 한국의 근대, 근대성 읽기 /7월 27일(화)
-김동택(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서강대 정치학 박사)

시간: 강좌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수강료: 무료(단 복사비는 수강생 부담)
접수기간: 1999년 3월 19(토)일부터 3월 29(월)일까지
접수처: 대학원 총학생회(대학원 건물 3층 312-1호)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수강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선착순)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학원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전화. 961-4446)

공동주최: 외대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 총학생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심층탐구 - 용인배움터 공동화 현상

그 많던 학생들은 어디에?

학내 문화행사 활성화 · 대학촌 형성 · 교통문제 해결 시급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용인배움터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듯하다. 오후 시간대가 되면 썰물처럼 배움터를 빠져 나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에 본보에서는 '용인 배움터 공동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편집자

학교에 학생들이 없다.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거가 아니라 우리학교 용인배움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개강초인데도 오후 4~5시경이면 학생들이 물밀 듯 빠져나가 학교가 썰렁해지는 '용인공동화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승차장엔 제법 많은 수의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가끔 과모임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곧장 집으로 가요. 학교 안에선 별로 할 만한 것도 놀 데도 없잖아요"(서학 · 이태리어 1 신나정)

"보통 모임이 있으면 버스 타고 나가서 강남역 부근에서 많이 모여요" (공대 · 정보통신 2 박동현)

"통학거리가 3시간이기 때문에 학교에 늦게까지 있는게 부담스러워요" (서학 · 영어 1 조은희)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를 일찍 떠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입을 통해 나온 공통적인 답변은 첫째, 학내 복지시설이나 문화행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보통 8시면 학내 모든 매점들은 문을 닫는다(승차장 매점 제외). 도서관이나 학생회관에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한 편의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또, 2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의 경우, 학교에서는 큰 공연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늘 리틀엔젤스 회관이나 KBS홀 같은 장소를 섭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바로 지난 11일(목)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학생회 영상위원회 주최의 '목요영화제'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스크림' '링' 등 두편의 작품을 상영했는데 200여 객석이 꽉 차는 등 학생들의 호응 또한 상당했다.

이에 영상위원회 권한대행 이용희(서학 · 독일어 4)군은, "영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학내에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앞으로는 영화상영시 설문조사와 토론 등도 실시해 영화를 대하는 비판적 안목을 길러주고 싶다" 라고 전한다.

둘째 문제는 올바른 대학촌 형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용인배움터는 교문에서 학교 건물까지의 거리가 상당한데다 그나마 형성된 상권도 술집, 당구장 등에 그쳐 실제로 학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 교통소위원회의 유경수(경상 · 경제 3)군은, "일단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4월말 정도부터는 지금 한시간에 한 번씩 어문관에서 모현까지 시범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정상운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다.

셋째로는 평균 한시간 반 이상씩 걸리는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서울-용인간 직행버스 노선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은 단지 지식만을 습득하는 공간이 아니다.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대학인만의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시급하다" 라는 윤용희(동구 · 체코어 4)양의 말은 지금 용인배움터 공동화현상을 해결할 만한 대책이 절실함을 시사해 준다.

장서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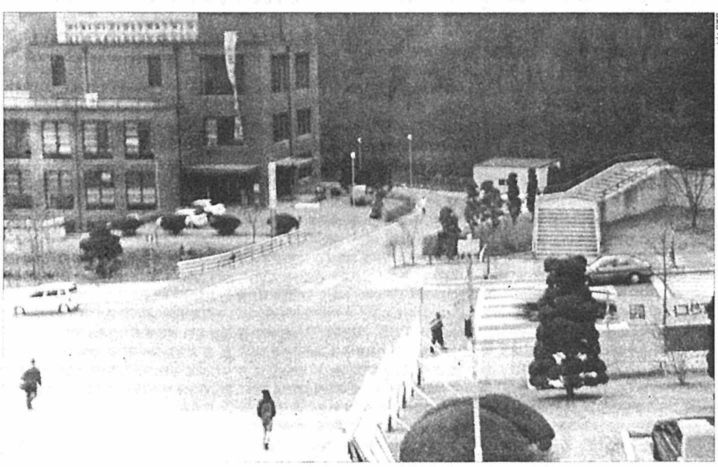
알림

본보는 외대인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하이텔, 나우누리에 이어 유니텔에도 ID를 개설하였습니다.

나우누리, 하이텔 : OEDAE / 유니텔 : 외대학보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외대학보—



정호성 기자

너비아니는 '불고기'의 옛말입니다

너비아니

<2>영화로 읽는 브라질 문화-중앙역 Ⅱ

공존을 위한 '인간애'

<중앙역>은 그리스 신화의 고전적 비극 -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 논이 그의 부인과 그녀의 정부에 의해 암살 당하자, 그의 어린 아들 오레스티스가 성장 후 벌이는 복수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비극적 상황을 만들어 낸 모든 이들, 특히 부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힘있는 자들의 양심을 건드려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여덟 살 짜리 소년이 그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모든 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제이다.

<중앙역>에서 월터 살리스 감독의 의도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대량소비 생활에서 소외되고 국가로부터 보호는 커녕 오히려 무시당하는 극빈자들의 비극을 하나의 감동적 스토리로 승화시킴으로 실현되었다. 그의 영화는 거대한 위력을 과시하는 TV 방송매체에서 방영되는 (시청자들의 눈물을 짜내는) 일반 멜로 드라마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클라 이맥스가 따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을 저릿저릿하게 여미는 힘을 가진 이 영화의 미학적 뿌리가 다름 아닌 시네마 노부(Cinema Novo)에 있기 때문이다.

도라에게 편지를 구술하는 가난한 문맹자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빈민층들이 지옥과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그들을 그렇게 만든 힘있는 자들에 대항하는 그들의 '단결'을 뜻한다. 하지만 어려운 삶을 영위해 왔던 도라는 그 단결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흉내를 내게 된다.

그녀가 수신인들에게 부쳐야 하는 편지들을 임의로 선택하여 보내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그녀에게 편지를 대필시킬 수밖에 없었던 다른 불쌍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조수에 어머니가 조수에의 아버지에게 구술했던 편지 또한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조수에의 결심이 없었다면 쓰레기통 속에 던져졌을 것이다.

힘없는 자들의 '단결'의 의미는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게된 조수에가 도라에게 접근할 때 다시 한번 나타난다. 하지만 도라는 이 소년을 입양기간을 사칭하는 장기매매단에 팔아 넘기고 그 대가로 칼라 TV를 장만한다. 뿌듯해하던 도라의 마음은 어느새 죄책감으로 바뀌고, 생사가 걸린 조수에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는 돌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부터 영화의 스토리는 급전한다. 도라는 무작정 조수에를 탈출시켜 그의 아버지를 같이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여정 중 통과하게 되는 광대한 북동부 지역의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사막은 잊혀진 브라질(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발견이며, 그곳에서 두 주인공들은 그들의 공존을 위해 "인간애"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다.

최금좌
<포르투갈어과 강사>

PC방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밤새 계속되는 '사이버 중독증'

새벽 두시. 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15평 남짓한 공간에 빼곡이 들어 앉은 사람들은 각자의 컴퓨터에 눈동자를 고정시킨 채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가끔씩 울리는 핸드폰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다.

작년까지만해도 이름조차 생소하던 컴퓨터 게임방(PC방)이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PC방은 전국적으로 3천여개,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부근만해도 30여개가 넘는다. 예전에 노래방, 비디오방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듯 이제는 PC방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취생이 많은 대학가 부근은 성업 중인 곳이 많다. 학교 앞 '최고의 게임방' 아르바이트생 김채현(가명, 24)군은, "보통 강의가 끝나는 5시 이후와 새벽시간 대에 손님이 가장 많다. 평일엔 하루 18만원, 주말엔 30만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다." 라고 밝힌다.

그렇다면 PC방이 이렇듯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가격이 싸고 '시간 때우기'에 적절하다는 점 때문이다. 보통 PC방 이용료는 업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1200~1500원 사이로 당구장, 노래방 등 다른 유흥시설보다 훨씬 싸다. 또한 PC방에서는 인터넷, 문서작업, 스캐닝 등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중에는 게임을 하러 오는 사람이 대다수다. 실제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게임 프로그램인 '스타크래프트(STARCRAFT)'의 인터넷 상 순위경쟁에서 상위권 중 40%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이 게임 프로그램의 선풍적 인기를 실감하게 해 준다. PC방에서 자주 이 게임을 하며 밤을 새운다는 김현민(서양 · 영어 1)군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오는데 한 번 오면 다섯 시간이 기본이다."라며 "자주 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라고 전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효과도 있다.

또 다른 PC방 단골손님인 김준희(경희대생,22)군은 "하루쯤 PC방에서 게임하며 밤새고 나면 다음날 생활에 지장을 주고 나 자신이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라며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외에 PC방은 엄연히 '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곳이 있어 요즘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음란 사이트, 미성년자 사용금지 게임 프로그램 등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컴퓨터 시대가 도래한 것은 대세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 게임방이 유행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컴퓨터 게임은 가상공간에서 장시간 혼자하기 때문에 철저히 개인을 고립시키는 것 같다"는 지연진(사회 · 신방4)양의 말처럼 현실과의 괴리감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정호성 기자

더군다나 그것이 중독성으로 이어져 다음날 생활에도 지장을 준다면 좋을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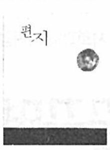
이것은 인간생활을 좀더 편리하게하고자 만든 컴퓨터에 오히려 종속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컴퓨터 게임방, 정말로 필요할 때에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서윤 기자

새책

옥중연서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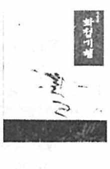
김남주 지음
이룸
7,500원



1946년 출생, 4.19,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시인 김남주를 기억할 것이다.
그가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 89년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감옥 안에서 애인 박광숙씨에게 썼던 편지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당시 감옥 안에 펜조차 주어지지 않아, 은박지를 못으로 하나하나 눌러박아 새긴 편지,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도 밝힐 수 없었던 눈물겨운 사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지난 94년 타계해 이미 우리 곁에 없는 시인의 불꽃같은 삶을, 이 책을 통해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화첩기행

김병종 지음
호형출판사
9,500원



이 책은 매주 월요일 조선일보에 연재되는 '김병종의 화첩기행'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나운규, 천상병, 최명희 등 한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들의 삶을 미대교수인 김병종씨의 거침없는 붓터치의 그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화순과 운주사' 처럼 문화 유적지 에 관련된 그림과 글들도 함께 엿볼 수 있다.

'노래로 크는 나무'

유니텔 민중가요 동호회 '노래로 크는 나무'가 공연을 갖는다.
'희망을 사가세요' '지금부터야' 등 귀에 익은 친숙한 민중가요를 들을 수 있는 이 공연은 4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와 6시 예술극장 '활인'에서 열린다.
공연의 제목은 '아흔 아홉번째의 희망'으로 경제난 등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노래로써 희망을 얘기해보고자 이런 주제를 정했다고 한다. 성신여대 입구역에 내리면 공연장을 찾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2천원이다.

학내 문화행사 일정표

	22일(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26일(금)	27일(토)
서울	영상사업단 '새내기 영화제' 노천극장 (22일~24일)		율동패 '신새벽' 율동강습회 오후 5시 3307 (23일~24일)			
용인				목요영화제 후복관 소극장 (25일)		

서울배움터

요일 \ 구분	학생 아침	학생 점심A	학생 저녁	대학원생 백반	대학원생 일품요리
월 (22일)	시금치된장국 (₩1,000)	사골우거지국밥 (₩1,400)	돈육김치볶음덮밥 (₩1,400)	순두부김치국 (₩2,300)	해물된장찌개 (₩2,700)
화 (23일)	육개장 (₩1,500)	오징어숙회비빔밥 (₩1,300)	냉이된장찌개 (₩1,300)	소고기미역국 (₩2,300)	[illegible] (₩2,700)
수 (24일)	북어국밥 (₩1,500)	두부덮밥 (₩1,300)	부대찌개 (₩1,500)	근대된장국 (₩2,300)	[illegible] (₩2,500)
목 (25일)	콩나물김치국 (₩1,000)	돈육볶음덮밥 (₩1,400)	콩나물비빔밥 (₩1,200)	시금치된장국 (₩2,300)	[illegible] (₩3,000)
금 (26일)	순두부찌개 (₩1,300)	닭곰탕 (₩1,400)	소고기국밥 (₩1,500)	무채매운국 (₩2,300)	[illegible] (₩2,400)

용인배움터

요일 \ 구분	어문관 중식1	어문관 중식2	어문관 석식	후복관 볶음류	후복관 덮밥/양식	후복관 탕류
월 (22일)	소고기유니짜장밥 (₩1,400)	돼지불고기백반 (₩1,800)	부대찌개 (₩1,400)	햄김치볶음밥 (₩1,400)	[illegible] (₩2,000)	사리곰탕 (₩1,800)
화 (16일)	오징어볶음덮밥 (₩1,400)	사리곰탕 (₩1,800)	미역완자국 (₩1,400)	양송이볶음밥 (₩1,500)	참치회덮밥 (₩1,500)	[illegible] (₩1,800)
수 (17일)	양송이볶음밥 (₩1,400)	참치회덮밥 (₩1,800)	[illegible] (₩1,400)	오징어볶음밥 (₩1,400)	[illegible] (₩2,000)	[illegible] (₩1,800)
목 (18일)	산채나물비빔밥 (₩1,400)	돈육보쌈정식 (₩1,800)	[illegible] (₩1,400)	[illegible] (₩1,400)	카레라이스 (₩1,500)	[illegible] (₩1,800)
금 (19일)	김치볶음밥 (₩1,400)	닭볶음탕 (₩1,800)	꽁치구이백반 (₩1,400)	[illegible] (₩1,500)	[illegible] (₩2,000)	[illegible] (₩1,800)

일본문화 개방, 가면을 벗겨라

<1>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둘러싼 논의를 두고 생각해 본다

98년. 전격적인 일본문화 개방이 시작됐다. 개방이나 반대냐를 논의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인 것이다. 이에 지난 학기 본보에서는 '문화 산업화 논리'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4회에 걸쳐 연재했다.

그렇다면 문화 개방의 이면에 깔린 숨은 의도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성있는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보도록 하자.

편집자

1.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둘러싼 논의를 두고 생각해 본다.
2.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실태
3. 문화개방 저변에 깔린 숨겨진 의도
4. 대안- 개성있는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일본은 싫은데 일본문화는 좋다?

문화개방을 둘러싼 세가지 논쟁 … 올바른 인식 필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문화계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문제이다. 1998년 2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문화체육부의 업무자료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방침이 밝혀지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 사실이 공표되자 한국 문화계와 언론계는 물론 컴퓨터 통신에서도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문제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갈래는 세 가지였다.

일본문화 개방을 둘러싼 세가지 논쟁

"절대 안돼 개방불가론"

일제 식민지의 경험이라는 우리 역사의 특수성과 일본 대중문화의 저질성, 그리고 국내 문화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일본 문화의 개방은 안된다는 것이다. 애국충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은 도외시한 채 '배째라 등 따라' 식의 버티기라는 점에서 안쓰럽다. 이이엠에프 관련 합의서의 부속문서에 일본의 영화와 비디오 등 대중문화 수입억제 방침을 철회한다는 합의조항이 있음을 상기하자.

또 아무리 버틴들 오늘밤에도 컴퓨터 통신을 타고 '신세기 에바'와 '세일러 문'이 한반도의 밤을 후끈 달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있다가 열어 줄께- 시기상조론 또는 선실력양성 후 문호개방론"

우리 문화산업을 육성한 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얼핏 합리적이지만 우리의 대중 문화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일본 문화의 표절인데(마징가제트와 로봇 태권브이, 에반겔리온과 라젠카), 구태여 표절문화를 육성해서 국제 사회에 또 하나의 일본문화의 아류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우리만 안 받으면 어떡해. 이미 들어 왔잖아. -정글대세론·또는 시장지상주의론"

미국 문화도 들어오고 있는데 유독 일본문화만 안될 게 뭐 있느냐. 일본문화가 다 저질도 아닌데. 오히려 문화적 고립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조차 경쟁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음성적으로 들어와 있는 일본대중문화를 양성화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여론의 평가에 맡기고 차제에 우리 문화도 이들 문화와 경쟁하면서 수준을 올리는 기회로 삼자고 한다. 진취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모하고 철없다. 7,80년대 국가의 보호정책에 의해 공룡으로 성장한 대기업 앞에서 병아리 같은 중소기업이 시장제일주의를 내세우면 그건 자살행위인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한국은 미·일의 소비·모방 시장

한 마디로 착잡하다. 어느 것이나 일리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약한자의 몸부림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세삼 하는 이야기이지만 일본 대중 문화를 개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과거 일본의 패션잡지 논노(NON-NO), 모어(MORE) 따위나 조악한 일본만화 등 서적을 매개로 한 제한적 보급과 달리 일본의 대중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깊이있는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십대들을 중심으로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일본의 신세대가 수인 안전지대, 소년대, X재팬, 구보타, 히데아키, 시즌 인더 선, 블루, 세이 에스의 공연이 한국에서 열리기를 고대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보라.

일본문화의 대중적 저변이 확대되고 내부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문화를 개방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 아니겠는가.

정부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의 무차별 침투를 우려하는 여론이 무성하자 작년 5월 일본전문가, 경제전문가, 역사학자, 국제무역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를 조직했다.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을 한일간의 대등한 문화교류라는 차원에서 풀어보겠단다. 가히 희대의 코메디이다. 교류라는 것은 주고 받는다는 뜻인데 도대체 우리가 줄 게 있는지 모르겠다.

> 자본과 기술의 열세속에서
> 우리가 가야할 정도는
> 문화에 대한 질높은
> 인식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 그것만이 문화에 대한 취사선택
> 의 능력을 가능케 한다

문화개방시대를 맞이해서 21세기 한국 문화가 세계문화에 기여할 것이 고작 일본문화, 미국문화의 소비시장이자 모방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어쨌든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제는 우리 문화가 거대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두 개의 문화에 대항하여 어떻게(승리라기 보다는) 공존이라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일본문화 개방에 나서는 우리의 할일

여기서 필자는 경쟁력있는 우리의 문화산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육성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보다는(그건 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우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일본의 대중 문화가 공식적인 개방 이전에 어떻게 한반도에 미리 자리 잡았는가 그리고 그 실태가 어떠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역대 우리 정권은 분명히 일본의 대중문화의 공식 수입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일본대중문화를 개방하기 위해 대문을 열려는 참나 이미 안방에서 싱글거리고 있는 일본 문화의 "선점거후농성"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본문화가 한반도 곳곳에서 흐뭇하게 꽃피고 있는데도 일본정부가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면서도 자국의 대중문화를 공식적으로 개방하기를 집요하게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일본이 30년 가까이 추구한 일련의 대 한국 문화정책의 성공을 의미한다. 단순한 문화 교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본정부의 문화정책과 이에 맞장구친 김대중 정권에 의해 이 땅에서 일본의 대중문화를 실질적으로 즐기는 우리의 십대들은 일본 정부의 대한국 문화정책의 본의 아닌 희생양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의 문화와 주고 받는 대등한 수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느냐 하는 서글픈 현실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 내세울 만한 우리 문화가 없기에 문화 교류가 아니라 문화 종속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개성있는 우리 문화가 자라지 못한 우리 현대사의 전개과정 즉 민족문화의 압살의 역사를 되씹어봄으로써 반성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마치 이이엠에프가 터지자 경제침문화가 열리듯 말이다.

세 번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대체로 여론은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문화산업의 육성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자본주의 지배 아래에서 문화는 상품으로 성장한다. 즉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문화는 돈을 벌기 위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한 차원 올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그 무엇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만화(영화)의 무차별한 폭력과 변태적인 섹스 묘사가 전세계 청소년의 코묻은 돈을 긁어 온다고 해서(그렇지 않은 좋은 일본의 작품도 많지만),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못쓴다. 헐리우드나 닌텐도가 추구하는 문화는 결코 우리가 모방해야 할 전범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위험한 공룡이다. 자본과 기술의 열세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정도는 문화에 대한 질높은 인식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그것만이 문화에 대한 취사선택의 능력을 가늠케 한다. 그 바탕 위에서 개성적이고 인간의 삶에 가치있는 문화를 육성함으로써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음 호부터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다루어 보기로 하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우리말 슬기쓰기

소변을 보다→오줌을 누다

'오줌'과 '똥'이 더러운 말일까요? 아닙니다. 더럽다고 한다면 우리가 똥이나 오줌을 눌 때 바닥에 줄줄 흐르는 오줌이나 툭 떨어지는 똥이 더럽지 말이 더러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똥과 오줌은 우리가 먹는 밥과 반찬을 이루는 거름이기도 하며 꽃과 나무가 잘 자라도록 힘을 돋워주는 임들이 아닙니까. 강아지똥도 민들레꽃을 샛노랗게 피우는 제 구실이 있듯 우리말 똥과 오줌도 제 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줌과 똥을 쓰지 않고 소변과 대변을 쓴다면? 소변과 대변을 써서 조금 더 깨끗해 질 수 있을까요?

말만 한자말로 바꿔서 깨끗해질 말이거나 일이라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날마다 신문 사회쪽을 가득 채우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까지 똥을 똥이라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최종규

〈서양·네덜란드어3. 휴학〉

문 화 단 신

용인, '전체 동아리 대표자대회' 열려

지난 20일(수)에는 1학기 첫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가 열렸다.

주요 안건은 겨울 방중사업(등록금 투쟁, 새터, 개강 준비 사업)보고, 동아리 오픈 하우스 평가, 1학기 동연 사업방향 토의, 교비 지급 방식 보고 등이 있었다. 이 중, 1학기 동연 사업 방향을 '환경개선'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4월중 학생회관내 PC실 설치, 냉온수기 비치, 보조열쇠 설치, 문화강좌 개최를 결의했다.

또 지난 학기 논란이 많았던 교비지급 문제는 동연에게 매 행사가 있을때마다 각 동아리의 필요 금액을 신청받아 학생처에서 교비를 타오는 '일괄지급' 방식과 '개별지급' 방식을 절충하는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

서울, 영상단 '새내기 영화제'

영상사업단의 '새내기 영화제'가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간 노천 극장에서 열린다.

첫날 창작영상물, '러브레터' 상영을 시작으로 'SHALL WE DANCE' '상계동 올림픽, 레드 헌트' 등 총 11작품을 상영하는 이번 영화제는 '새내기에게 영화 보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새로운 영화를 소개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24일(수)에는 '레드 헌트' '22일간의 고백' 등 사회성 있는 우리나라 독립영화들을 상영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단장 하성희(사회·신방 3)양은 "새내기들이 그동안 잘 몰랐던 정치, 사상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싶다"라고 전한다.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제5기 결산공고

(단위 : 원)

과 목	제 5 (당) 기 금 액		제 4 (전) 기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192,263,871		137,973,399
(1)당좌자산		140,734,786		82,137,875
현금과 예금		140,449,086		81,938,515
가지급금		285,700		154,360
(2)재고자산		51,519,085		55,835,524
상품		43,255,630		48,358,880
원재료		8,263,455		7,476,644
Ⅱ.고정자산		61,213,913		85,701,827
(1)투자자산		1,673,000		1,673,000
임차보증금		70,000		70,000
출자금		800,000		800,000
전신전화가입권		803,000		803,000
(2)유형자산		59,540,9138		4,028,827
구축물	38,690,000		38,690,000	
감가상각누계액	27,633,211	11,056,789	26,544,025	12,145,975
차량운반구	4,100,310		4,100,310	
감가상각누계액	3,550,999	549,311	2,66,399	1,439,911

과 목	제 5 (당) 기 금 액		제 4 (전) 기 금 액	
비품	147,991,626		143,701,626	
감가상각누계액	100,179,195	47,812,431	73,481,603	70,220,023
시설장치	500,000		500,00	
감가상각누계액	377,618	122,328	277,082	222,918
(3)무형자산		0		0
(4)이월자산		0		0
자 산 총 계		253,467,784		223,675,226
부 채				
Ⅰ.유동부채		47,305,194		71,626,440
외상매입금		1,983,120		898,000
예수금		2,612,218		0
수탁판매예수금		60,116,700		58,404,558
Ⅱ.고정부채		60,116,700		58,404,558
임대보증금		500,000		0
퇴직금이충당금	74,581,700		68,697,758	
국민연금전환금	14,965,000	59,616,700	10,293,200	58,404,558
Ⅲ.이연부채		0		0
부 채 총 계		107,421,894		180,030,998

과 목	제 5 (당) 기 금 액		제 4 (전) 기 금 액	
자 본				
Ⅰ.자본금		15,090,540		12,411,540
출자금		15,090,540		12,411,540
Ⅱ.자본잉여금		47,350,190		47,350,190
(1)자본준비금		47,350,190		47,350,190
자산수증이익		47,350,190		47,350,190
(2)재평가책입금		0		0
Ⅲ.이익잉여금		83,650,160		33,882,498
차기이월이익잉여금		83,650,160		33,882,498
(당기순이익)	(-40,926,702)		(-40,446,236)	
Ⅳ.자본조정		0		0
자 본 총 계		146,045,890		93,644,228
부채외자본총계		253,467,784		223,675,226

위와 같이 공고함.

1999년 3월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제5차 생활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

조합정관 제22조(총회의 소집), 제23조(총회의 소집통지),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에 의서 생활협동조합 정기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조합1년 사업을 심의·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1999년 3월 31일 16:30
2. 장 소 : 후생관 1층 귀빈식당
3.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1998 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승인
제2호 의안 : 1998년 사업 및 결산보고 및 잉여금 처리
제3호 의안 : 199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4호 의안 : 1999년 조합 임원 승인

1999. 3.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동총련 의장으로 당선된 정재원군을 만나

"조국과 민중을 위해 다 바쳐가겠습니다"

당선소감은

대의원과 학우들의 눈빛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 동총련의 단결된 힘으로 시기적절하게 대의원대회를 성사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당면해서는 '미국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교육침탈 분쇄와 주한미군 철거, 국가교육재정확보를 위한 4·2 한총련 총궐기'와 '미국의 경제침탈, 전쟁책동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4·3 민중대회'에 총력집중 할 것이다. 100만의 지지와 10만의 참여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4·2, 4·3을 통해 미국의 본질과 그들의 전쟁책동, 경제침탈의 작태를 알려내고 이를 김대중 정권 퇴진과 미제국주의 타도투쟁으로 확산시켜낼 것이다.

8만 동총련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대대회 후 진행된 동총련 결의대회에서 비록 집회대열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한 양대 학우들을 보았다. 학우들도 피폐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모아나가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하는 길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바쳐가겠다'는 결의로 힘차게 살아가겠다. 김경신 기자

동총련, 서총련 정기 대의원 대회 성사

'역사의 정방향'에서 운동 대중화 기치 올려

(1면에서 이어짐)

지난 17일 열린 동총련 대대회에서 정재원(동총련 임시의장,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군은 의장선거 단독후보로 출마해 참석 대의원 41명중 찬성 39, 반대 1, 무효 1 표를 얻어 95%의 찬성률로 '12기 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 의장'으로 당선됐다.

당선후 정재원 의장은 "현재 우리는 제국주의, 사대매국주의자들과 일대 대격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학우, 민중을 주인으로 세워내는 투쟁을 통해 기어이 올해 '자주'와 '통일'의 새세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조국과 민중을 위해 다바쳐가는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당선결의를 밝혔다.

이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총노선에서는 '자주·민주·통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계각층 민중들과 강위력한 공동연대투쟁을 벌여 김대중 퇴진국면을 창출해야 하며, 전민족대단결 기운을 고조시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할 것'이라는 총적과제가 제시됐다.

동총련은 대의원대회 후 한양대에서 '미국의 전쟁책동·경제침탈·교육침탈 분쇄와 주한미군 철거,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동총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지리에서 이현정(건대 총여학생회장)양은 "질차는 비상시국이 닥쳤을때 차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비를 싸게 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질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상시국(전쟁)이 올 것이니 차를 반납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전달되고 있다"라며 전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또한 참가자들은 전투경찰의 삼엄한 원천봉쇄속에서 시민, 학생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이후 '대동놀이'를 통해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대대회를 마무리지었다.

이자리에 참가한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율동패 신새벽 송정민(상경·경영 2)군은 "대표자를 우리손으로 선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반미자주' '사대매국 김대중 정권 타도' '미국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반대' 등의 구호와 주장을 외치는 것을 보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라며 "특히 이땀의 가장 큰 모순인 '반미'의 이야기를 새내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각 지역총련의 대대회 성사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서총련 대대회가 진행됐다.

경선으로 치뤄진 서총련 의장선거에서 이성희(12기 서총련 임시의장, 홍익대 총학생회장)군은 여준호(경희대 총학생회장)군을 상대로 139명의 대의원 중 74표를 얻어 서총련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성희 의장은 당선결의 발언을 통해 "서총련은 점권의 광폭한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었다"라며 "민중의 힘에 근거한 서총련 40만의 힘으로 '반미자주' '조국통일'을 향한 투쟁을 본때있게 펼쳐보자"라고 밝혔다.

선거에서 낙선한 경희대 총학생회장 여준호군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민중들, 학우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안고 언제나 동지들을 믿는 속에서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높였다.

이어 총노선 인준이 진행됐는데, 경희대 총학생회가 중앙상임위에서 제안한 총노선에 대한 이견안을 제출, 이에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이견안은 56%의 반대율로 폐기됐지만, 서총련 중앙상임위는 이후 총노선에서 이견안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 총노선에 반영할 것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12기 서총련 총노선은 "99년 대격돌은 각계각층의 민중의 요구가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기반하여 분출되어 '반미자주'로 지향되는 투쟁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90년대 학생운동이 일궈낸 승리는 정권의 온갖 탄압과 개량화 공세 속에서 흔들림없이 원칙을 고수하여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결정적 승리를 앞당겨 왔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대중운동 활성화의 조직적 토대, 학생회를 강화하여 반미자주,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밝혀 학생회를 강화해 운동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서총련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서총련은 "대중운동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3대 핵심사업"으로 △혁신소조운동 △구국선봉대 강화사업 △공동연대투쟁을 위한 화요집회 등을 제시했다. 김경신 기자

한국과 일본은 지난 17일(수) 한일어업협정 추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를 했던 어민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절망'이었다. 우리나라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쌍끌이 어선의 어획쿼터를 확보하지 못했고, 황금어장인 제주 남서부 우리쪽 수역안에서의 일본쪽 복어반두조업을 대폭 확대해주는 등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생존피탄의 위기에 직면해있는 부산지역 어민들의 삶과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불평등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편집자

부산르포 - 한일 어업협정 이후 남부민항 어민들의 삶

"정부에서 바다를 팔아먹은거 아입니까"

"그놈의 한일어업협정이니 뭐니 하는 것 때문에 조업할 데가 없심더. 하루말 내내 잡아봐야 수십마리 정도밖에 못잡고 어획량이 70%나 억수로 줄었다 아입니까?"

부산 남부민항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조업하고 있는 남덕룡씨(45)는 한숨을 푹 내쉬고 만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챙기는데나 급급하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디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어떻게 안답니까."

남부민항에서 버스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다대포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로 일명 '고대구리'라고 부르는 소형저인망 어선들의 전진기지다. 이곳 어민들 대부분은 4-5톤에 이르는 소형어선으로 근해에서 조업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배석보(34)씨 또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에서 바다를 팔아먹은거 아입니까? 어민들 죽을 지경이라요" 예정에는 충무의 대형 장어잡이 통발어선들이 일본 대마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는데, 일본수역내 조업이 제한되면서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 보니 소형어선을 가지고 있는 영세어민들은 고기잡을 곳이 없다고 한다.

"내가 지금 이짓이나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닌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잡으러 갈수가 있어야제…" 배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내 한숨을 내쉬고 만다.

이튿날 새벽 4시, 남부민항 공동어시장에는 보름전 제주도 근해로 조업을 나갔다가 돌아온 어선들이 입어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어선은 우리나라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명 '쌍끌이 어선'이었다.

대개 쌍끌이 어선은 일본 경계선이나 동해 경계선 근해 등지로 보름정도 조업을 나가는데 예전 전상자 정도의 어획량이 이젠 4백상자로 '뚝' 떨어져 버렸다. 게다가 이제는 조업자체가 불법이라 어민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릴 판이다.

"예년에는 돈좀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데 구경도 가는 꿈을 꿨는데 이젠 그런 희망조차 없심더." 바다가 좋고 고기잡는것이 신기해 군제대 후 25년간 배를 탔다는 '37 동아호' 선원 여운남(48)씨. 생산고를 올려야 월급도 올라가는데 형편없는 어획량 때문에 여씨는 이번 섬에 고향에도 못내려가고 가족들과 집에서 보냈다고 한다. "20년동안 바다가 좋아서 배만 알고 살아온 뱃사람이 배를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심니까? 실업자가 2백만이라는데 이 짓 그만둔다 해도 삶길이 막막할끼 아입니까?" 여씨는 거무튀튀하게 그을린 얼굴을 이내 떨구고 만다.

황금어장인 배타적경제수역내 조업이 봉쇄된지 벌써 60여일째. 황금어장을 잃어버린 허탈감에 빠질 겨를도 없이 먹고 살길 조차 막막한 부산 남부민항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농민대회, 정권의 폭력진압과 약속 불이행으로 물의 빚어

지난 18일(목)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협중앙회 앞에서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국농민조합원대회'를 개최했다.

농민들은 농협의 졸속 개혁안에 항의, 농협중앙회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정권은 10여개 중대의 전투경찰과 백골단을 투입해 이들을 폭력으로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정광훈 전농의장과 유상옥 전농 사무처장 등 50여명의 농민들이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는 전투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됐으며, 대회를 같이 벌이고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무차별 폭력연행돼 충격을 주고있다.

경찰의 폭력진압과 강제연행을 규탄하며 농민 3백여명은 중앙회 건물에 진입해 점거농성을 벌였고 전농지도부와 농협중앙회, 경찰은 △연행자 전원석방 △대회참가자 안전귀가보장 △전농지도부 추후 조사 등을 합의했다. 이에 농성중이던 농민 3백여명은 곧바로 철수했으나, 경찰은 연행자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전농 사무처장을 비롯한 농민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벌였다.

이에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권은 졸속 협동조합개혁안을 철회하고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적절한조치를 약속했어야 마땅했음에도 오히려 정당한 농민대회를 경찰병력으로 진압하고 수십명을 연행함으로써 농민과 대다수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뿐만아니라 농성을 벌이던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연행자들을 석방하는 대신 전농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물귀치하고 부도덕한 행위이다"라며 김대중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KAIST 조직사건 발생

조직사건을 이용한 정권의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화) 보안수사대는 문경환(KAIST 93학번)군을 '이북에 관련한 문서를 전하고 있었다'는 명분으로 강제연행하고 문군이 'KAIST 아침햇살 자주대오 총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을 상대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KAIST 아침햇살 자주대오 조직사건'은 98년 초 경찰측이 KAIST 총·부학생회장에게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던 당시 존재하지 않는 과거대 조직사건 조직표를 만들어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조직사건을 터트리겠다"고 협박을 자행했던 것으로 비추어볼때 미리 준비되어 있던 조직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기대 측은 "이시기에 정권이 조직사건을 터뜨린 이유는 '총학생회 선거'를 방해하여 지금의 중심된 역할을 해나가야 할 총학생회 건설을 저지, 'KAIST 교육부이관 반대투쟁'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이번 자주대오 조직사건을 반대투쟁을 대전지역단체까지 확대하여 지역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현주 기자

김대중정권, '미국'에 살고 '민중'에 죽는다

1. 사대매국의 역사에 자유로울 수 없는 DJ.
2. 미국이 한다면 '전쟁'도 한다.
3.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제주권의 양도

최근 일간지들은 금창리 지하시설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책동을 포기하고 있는가?

미국에게 빼앗긴 '군사주권'과 남한에서 양반행세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책동 행적을 살펴보면서 미국을 이땅에서 몰아내지 않는 한반도는 항상 '전쟁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시리즈를 통해 확인해본다. 편집자

남, 작전권 없는 미국의 고용군대… '전쟁책동 꼭두각시'

최근의 한반도 정세

"미국이 있는 한 전쟁위기는 계속된다"

최근 일간지 보도를 살펴보면 금창리 지하시설을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이 일정정도 타결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단할 수는 없다. 미국의 의도와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에서는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을 공개하는 댓가로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아들임으로써 북미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금창리 지역의 현장방문 이외에 핵시설이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복수사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2, 제3의 금창리는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북한에는 금창리 이외에도 대량 파괴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지하시설이 12곳 더 있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미사일 협상'이다.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7일 국가미사일방위(NMD) 계획'을 새로운 국방정책으로 확정했다. 한편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한편으로는 '탄도미사일로부터의 방위' 명목하에 강력한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미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위기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강경발언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핵지하시설이나 미사일 발사문제를 내세우며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후, 곧바로 압록강까지 수복한다'는 '신5027작전계획'의 2단계와 일치한다.

또한 한미연합심리전 사령부 설치와 항공작전사령부 설치 그리고 4월에 10만이 동원되는 핵전쟁 훈련인 RSOI 훈련을 감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전쟁이 그들의 목적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이며 나아가 CIA 한국지부 요원들 중 대북관계 요원이 대폭 강화된 사실도 이러한 위기국면을 반증한다.

또한 일본도 이에 편승, "침략국이 무력공격에 착수한 경우 일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라도 적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다(일본 방위청 장관)"고 발언하며 동북아에서의 전역미사일방어(TDM)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전쟁책동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이에 편승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행적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박광수(민권공대위 정책위원회)씨는 "한반도는 분단 50년동안 미국의 전쟁책동에 의해 끊임없이 위기를 맞이했으며, '반미자주' '조국통일'로 미제국주의를 이땅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언제고 한반도는 전쟁참화의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겸신 기자

우리에겐 '군사주권'이 없다

"한국군은 미국의 훌륭한 보초병이다"

"한국군은 어디까지나 철두철미하게 미국의 고용군대이며 또한 아시아 진출의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미 군사관계 전문지 '군사평론')

"한국은 미국의 군부가 전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회사(子會社)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잠군에서 졸병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물질적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향락중에는 몇천명, 몇만명 이라는 단위로 공급되는 젊은 여성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그레고리 핸더슨, 하버드대, 전 주한미대사관 문정관)

"한국군은 우리나라(미국)의 투자를 지켜주는 훌륭한 보초병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는 군대이다"(전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 준장)

위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고 있건 미국의 군부들은 한국군을 '훌륭한 보초병'으로, 한국을 '미국이 전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개 자회사'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1953년 10월 워싱턴에서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뒤에 본조약을 종지할 수 있다."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무기한으로 유효히' 양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후 한반도의 미군주둔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주권 양도의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1월 5일) 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전면전 발발이 아닌 평시상황에도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평시작전권까지 이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우리 군대가 '군사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허락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음을 의미하며, 미국의 전쟁책동에 고용군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다름아니다.

남한을 미군범죄의 천국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은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미행협 22조 3항에 따르면 미군범죄의 재판권은 우선 미국에게 있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죄 등 조차도 사건발생 15일 이내에 한국의 요청이 없으면 재판권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넘어가게 되어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 스스로에 의해 성취되어야 하며 강대국들은 한민족의 민족주의를 높이 신뢰하고 한반도 문제로부터 손을 떼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먼저 철수해야 한다." (셀리그 해리슨,미 우드로 윌슨 연구소 수석연구원)

미 한반도문제전문가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김겸신 기자

"자주'없는 국민은 '노예일' 뿐입니다"

미국의 전쟁책동과 김대중 정권의 반민족, 반통일적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미·김의 전쟁책동을 규탄하고 '반미자주'의 입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적극적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민권구국선언(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분단독재정권에서 민족자주권과 민중기본권은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질식했다. 민족자주의 첫 걸음은 '군사주권'을 찾는 일이다. 협정 당사자인 이북과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외국군대는 이땅에서 물러가야 한다…7천만 겨레는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서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 3대 원칙으로 합의해 만천하에 선언했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김대중 정권은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해외 3자가 연대한 조국통일운동 구심체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허용해야 한다. 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강령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에 일치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당신들(미국)은 당신들 나라의 국익만을 위해 비인도주의적인 강자의 논리로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를 공격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영토가 아닌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 그 화약고를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027전쟁작전계획의 무조건 철회, 한미방위조약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자결권을 행사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손으로 결정하도록 하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성명서

"미국의 북에 대한 도발과 침공은 곧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유린입니다…미국의 한반도 전쟁도발 조종에 아부추종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도 북침야망을 버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1999 민중선언 (99년 2월 민중대회 참가자일동)

"남북은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준수하라. 정전 협정을 백지화 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군사공조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김대중 정권은 분단정권 안보를 위해 동족을 적으로 못박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제도적 장벽인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민족문제를 풀 수 없다." 사회부

주한미군 범죄, 이렇게 자행된다

외무부가 밝힌 '미군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5명, 해마다 2200여명의 주한미군이 범죄행각을 자행하고 있는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살인을 저질러도 '미군당국이 우선적인 재판권을 갖는다'는 한일행정협정에 따라 정당한 죄값도 치르지 않는다. 기간 주한미군이 자행했던 많은 범죄행각 중 특히 문제시됐던 사건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아본다.

윤금이씨 살해사건

92년 10월 28일, 미2사단에 근무하는 미 군병사 케네스 리 마클 이병(당시 20세)는 윤금이씨(당시 26세)의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하고 피흘리며 죽어가는 윤씨의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아넣어 살해했다.

조중필씨 살해사건

97년 4월 3일 밤 11시경 재미교포 애디라는 미군속의 아들인 페터슨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버거킹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홍익대 전자공학과 4학년, 22세)씨의 가슴과 목 등 9군데를 휴대용 칼로 아무 이유없이 마구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전진화, 이보비 모녀 살해사건

지난 2월 25일 한남대교 부근에서 전진화, 이보비 모녀가 불에 타 숨진채 발견됐다. 범인은 미8군 해군경비대 소속 제임스 커먼하사로 밝혀졌는데, 지난 81년부터 전씨를 성노리개로 삼아오다 미국귀환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살인만행을 저질렀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정유진 간사는 "미군에 의한 살인사건 및 범죄는 그 행각도 잔인할 뿐 아니라 제대로 처리된 사안이 거의 없다"라며 "미군범죄를 정당화시키는 '한미행정협정' 파기와 주한미군 철거만이 궁극적인 대안이다"라고 말한다. 사회부

교 육침략은 말한다 ④ 타국의 교육침략 사례2 - 중국

식민지 교육 '자주 교육'으로 돌파

중국, 사회주의적 국가교육 · 교육재정 확보로 극복

교육침략은 말한다

순 서

① 일제침략사 상
② 일제침략사 하
③ 타국의 교육침략 사례
④ 타국의 교육침략 사례2
⑤ 현대 제국주의 하에서의 침략과정
⑥미국의 교육침략사 상
⑦미국의 교육침략사 중
⑧미국의 교육침략사 하
⑨제국주의 교육침략 총괄
⑩교육 침략은 말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패권적인 나라들. 이들은 많은 약소국가에서 교육침탈을 자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침략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그 침략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게 드러난다. 지난 호에서 서술된 인도의 100년전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영어지상주의와 엘리트 교육으로 점철돼 있다.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위에서 서술한 두 가지 문제점을 비롯해 심각한 상황에 있음에도 이를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 견지하지 못해, 여전히 사대적인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중국의 교육개혁 사례를 통해 짚어내고, 향후 전망을 세워보고자 한다.

편집자

1900년 의화단 봉기를 통해 처음으로 완강한 저항을 받았던 열강들은 대중국정책을 무력침략에서 교육·문화 침략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영국 외상, 독일의 장군, 오스트리아 신문 등은 문화·교육 차원의 대중국정책 강화를 권유하였다.

영국·독일·프랑스는 한결같이 중국에 대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교회와 교회학교를 건설하여 코스모폴리탄이즘(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이식하는 사해동포주의, 세계주의)을 중국인 사이에 부식시키려고 애썼다. 1840년 천진조약 이래 체결된 수많은 불평등조약을 통해 열강은 선교의 자유와 아울러 교회와 교회학교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받았다. 선교활동이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게된 데에는 선교활동 역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 큰 작용을 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중국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영국·독일·프랑스처럼 중국 내의 거점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문화침략에 힘을 쏟았다. 의화단 배상금을 중국에 반환하고, 미션·록펠러 등 많은 재단을 내세워 미국유학을 장려하고 교육학자를 파견하여 중국의 교육제도를 전체적으로 미국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미국형 교육이 특별히 영·독·불형 교육과 구별되는 것은 이들 교회학교에서 배양된 구미숭배의 풍조를 이용하여 학교교육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이다. 1919년 죤 듀이가 중국을 방문하여 약 2년간 중국 각지를 순회 강연하였고, 1921년에는 먼로가 방문하였다. 특히 먼로는 미국식 학제의 도입과 그 교과과정, 교수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22년 11월에 공포된 신학제(대총통교령 '학교계통개혁령')는 국민학교 6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교 4~6년으로 6·3·3·4제를 채택하였다. 미국의 학제와 부합됨으로써 첫째, 같은 수준의 미국학교로 유학하는 데 편리했으며 둘째는, 미국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과정, 수업방식을 편리하게 직수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대만에서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신학제하에서 중국의 일부 지식인 사이에 극단적인 구미숭배, 중국문화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태도가 확산되었다. 영국의 역사가 토니는 1930년대 중국의 대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외국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학생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실생활을 준비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다는 자명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제도는 이국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학위만을 얻고자 하는 학생, 학위를 수여하면 그만이라는 교수들의 태도에는 상업화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식민지교육에 대한 저항운동

식민지 교육통제에 대한 중국민중의 저항은 농민층·지식인층 및 노동자들에 의해 계급·계층별로 다양한 형식을 띠고 전개되었다.

초기에 농민은 의화단이 했던 것처럼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한 특권학교를 파괴하는 것으로 저항했다. 의화단 이후에도 청조정부의 신학제가 직접 농민에 대해 세부담을 과중시켰기 때문에 학교파괴운동이 계속되었다. 지식인층은 1919년 이래 형성된 애국적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교육권 회복운동을 통해 저항했다. 1922년에 북경과 남경에서는 반그리스도교 대동맹이 결성되어 각지로 강연회가 확산되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다음 다섯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회학교가 중국정부의 별도로 독자적인 치외법권적 교육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 교회는 각기 독자적인 장학제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별로 조직된 교육연맹이 교재나 인사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교회학교의 교육내용이 사대주의를 가르치고, 중국인에게 불필요한 관습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을 천시하는 생각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교회학교의 학생단속도 좋지 않다. 학생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탄압받고 있다(5·4운동 당시 상해에 설립된 한 대학은 학생의 데모 참가를 금지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퇴학당했다).

넷째, 교사의 수준이 뒤떨어진다. 중국에서 가르치면서 중국어도, 중국의 실상도, 교육학도 모른다.

다섯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로지 선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렇듯 제국주의적 교육침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펼쳐졌던 선교활동은 이를 통해 활동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것은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틀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민혁명정부의 교육강령

1924년 손문의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합작을 실현했을 때, 각지에서는 민중 자신의 힘으로 각종 학교를 세웠다. 여기서는 중국의 반식민지적인 현실을 자각시키는 교육을 했다. 상해대학, 광동농민운동강습소 등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1926년부터 1927년에 걸쳐서 국민혁명국이 북방의 군벌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북벌원정에 나선 과정에서 '남화교육이론'이라는 반식민지적 교육이론이 등장했다.

이 이론에서는 '제국주의와의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중시할 것. 식민지에서 혁명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크므로, 학교교육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교육은 산업과 결합해야 한다. 공장·농장을 학교에 병합시키는가, 아니면 학교 내에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일환으로 시제 활동에 참가시키며, 모든 의무교육학교의 하비를 면제하고 의무교육연한을 6세부터 18세까지로 해야한다'로 되어있다.

이 교육계획은 1927년 4월 국민당의 쿠데타로 무산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핵심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계승·발전된다.

국가에 의한 자주적 교육건설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 나가는 중국교육계에서 담초 주류를 차지했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은 사회주의적 내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 국가가 경영하며 교수요강, 교과서 등은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간의 격차를 조장하거나 도시와 농촌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셋째, 교육재정은 국가에 의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중·고등교육에 장학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에서의 식민지 극복을 위한 '자주교육 건설 운동'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제국주의적 교육침탈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개된다는 사실이며,이러한 교육침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교육 건설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6·3·3·4 학제와 같이 우리가 크게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서 더 큰 교육침략의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검증된 이러한 사실과 관련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정책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얼마전 각 일간지에도 소개된 것처럼 미국의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압박은 경제부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부문에서도 여전하며, 이러한 압력이 이미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반영된 것은 지명한 사실이다.(외대학보 98년 2학기 10면 대학기획 참조)

교육부문에서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현 학생들뿐 아니라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할 후손들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있어 많은 변화를 일게하는 것, 역시에서도 증명됐듯 정당한 요구지침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현 과제인 것이다.

전대기련공동기자단

밥그릇싸움

○…정부 2차 조직개편

발표 전 :각 정당마다 자기 정당 세력 늘리려 눈치싸움
발표 직후: 무리한 살쾌기로 영양실조 우려 비판
결과: 행정기관간 밥그릇 싸움에 사실상 백지화
크로니클자 결과를 보며 "밥그릇 싸움에 민중등 터질라"

〈석〉

○…눈칫밥 먹는 한국인

한국 해양수산부장관과 일본 농수산상이 식당에 갔다. 일본인은 복어, 오징어도 먹고 독도 특산물까지 먹어대는데, 우리 한국인은 일본인만 빤히 쳐다보며 일본인이 먹다남은 것만 눈치보며 먹어대는데... 우리 크로니클자 "지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굴욕외교. 금창리 협상 따낸 북한 좀 배워라 배워.

〈정〉

○…그땐 그랬지

DJ가 야당 총재시절 줄기차게 주장했던 특별검사제와 인사청문회.
시민단체: 권력견제 위해 특검제와 인사청문회 합시다.
DJ:미국에서도 실패했소.
시민단체: 민주화투쟁을 이끈 정치지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DJ: 그땐 그랬지. 집권해 보오. 권력이란게 정말 달다우.

〈우〉

○…학부제 칠폐로 오행시 짓기

학부제 실시로 무역학과가 없어진다고요?
부당한 현실이 너무 슬퍼!
제가 후배도 못받다니요!
철야농성을 해서라도
폐과는 용납 못해요!

〈장〉

학부제철폐오행시

비둘기칠판

왕산골

■알립니다

· 16기 철학인들은 사랑하는 박정근 교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99년 2월 교육부 교원 징계재심위원회에서도 교원징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박정근 선생님의 징계사유가 직권면직이라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반려한바 있습니다. 지금 160 철학인들은 박정근 선생님의 징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학교당국은 더 이상 우리 학우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교원징계심의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정근 선생님 복직을 위한 철학과 비상대책위원회〉

· 푸름이 새식구들을 환영합니다.
〈동구어대 학생회〉

· 불어과 연합 모꼬지에 다녀오신 새내기·되내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구요, 내중에 학교에서 밝은 얼굴로 만나요.
〈Melanel〉

■ 모집합니다

·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왕산인 모두 환영합니다.
〈외대불교학생회〉

· 인문대에서 간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 윤철이보다 못생기고 대권이 보다 잘생긴 사람
문의: 전화 4085
〈인문대 학생회〉

■ 축하합니다

· 병직아, 늦었지만 생일 정말 축하한다.
생일날 가고 싶었지만 사정상 못갔다.
미안하고 학교 빠지지 말고 꾸준히 다녀라.
〈꼴통이〉

이문벌

■ 알립니다

· 융동패 '신새벽'이 융동 강습회를 합니다. 새내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해요.
때: 24일(수) 늦은 5시
곳: 3307
〈융동패 신새벽〉

· 모의 월드컵에 출전하는 인도어과 축구대표 여러분, 선전을 기원합니다.
〈하나되어 외치는 중심선언 인도어과 학생회〉

· 애드라인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합격하신 김해미, 김보영, 김진영, 문방우, 박현규, 성미세, 이득현, 이예령, 이진모, 장미, 정덕화, 정승은, 허용원님 축하드립니다.
〈외대광고 동아리 AD-LINE〉

· 행정학과 총 모꼬지 갑니다.
때 : 28(금), 29(토)
곳 : 대성리
행정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정학과 학생회〉

■ 축하합니다

·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61기 수습기자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한길에 힘찬 출발을 기원합니다.
합격자: 박정하(서양·서반어어), 잠윤선(동구·헝가리어), 박동희(서양·독일어), 잠석원(서양·서반어어), 최현정(동구·헝가리어), 최호녕(인문학부), 윤홍은(동학·아랍어), 박지환(법·법학)
〈외대언협〉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용인, '등록금 삭감'을 위한 정총 개최

25일 공탁소송 제기 후 마련하는 자리

용인배움터 정기학생 총회 및 20대 총학생회 해오름식이 오는 26일(금) 2시,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민주납부를 마무리하고 공탁소송을 제기하는 25일(목)에 이어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는 1부 해오름식 및 축하공연과 2부 학생총회로 진행된다.

이번 정기학생총회는 종전대로 혜은 총학생회 출범식 차원이 아닌 등록금삭감 결의,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용인배움터 발전계획에 합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신동헌(동구·헝가리어 4)군은 "등록금 삭감, 민중생존권쟁취의 정당성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민주납부실천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총회가 끝난 후 한양대에서 열리는 '등록금 삭감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및 청년문화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각과 정기학생총회 마무리

대부분 학사행정 개선논의

서울배움터에서 과 정기총회가 지난주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치외교학과

지난 18(목) 대학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칙 개정과 운영위원회에 대해 논의했다.

60여명이 참여한 이 날 정기총회에 대해 과 회장 황인표(3)군은 "이번 행사를 학생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아 앞으로 과 행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어과

18일(목) 사회과학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학점제한등의 학사행정 △모의월드컵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모임 파악과 이태경(94)군의 과회장 인준도 같이 진행했다.

베트남어과

18일(목) 사회과학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학사행정 문제 △우정장학금 문제 △베트남어과의 날 제정 문제 △베트남어과 피징계 교수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영어교육과

16일(화) 대학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과 집행부 인준 △99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불어과

17일(수) 사회과학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학생회 결산을 보고한 후 과방 금연문제, 학사행정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랍어과

17일(수) 학생회 사업계획과 학생회칙 개정안 등에 대해 결정하고 최근 개편된 학사 행정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스칸디나비아어과

19일(금)에는 스칸디나비아어학과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과 회장 인준이 같이 이루어졌다.

송인섭(3)군이 과 회장에 인준되었으며, 99년 집행부 인준과 총모꼬지 등의 과행사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학부제 철폐, 비나이다

용인배움터 자연대 강당에서 지난 18일(목) '학부제 철폐와 원칙없는 학제개편 반대를 위한 16대 결상대 해오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합을 도약으로 도약을 믿음으로…」라는 기조에 걸맞게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 무역학과 세과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역학과 존폐위기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효정 기자

이번주 양배움터 단학대회 진행될 예정

단과대 학생의 의견을 모으는 단대학생대표자회의(단학대회)가 이번주부터 열리기 시작한다.

사회대

25일(목) 사회과학관 508호에서 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한다. 이 날 안건으로는 계열제 문제, 단대 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98년 외대발전 투쟁에 대한 평가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범대

22일(월)에는 인문과학관 301호에서 사범대학생대표자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범대는 △학생회 회칙개정 △교생 실습문제 △교육자료실 운영 세칙에 관한 문제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서양어대

24일(수) 6시 대학원 소극장에서 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한다.

이 날 안건은 △서양어대 총노선 △각 국 사업계획서 △7기 한총련에 대한 서양어대 입장 △99년 교육투쟁등의 안건이 논의된다.

서양학대

용인배움터 서양학대 대표자회의가 오는 23일(화) 5시 30분, 교양관 301호에서 열린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총련 대의원직 탈퇴 여부 △상대평가제, 학부제 및 계열제 등으로 인한 학생자치권과 교육권 박탈문제등을 논의하고 청년실업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처리안건은 △서양학대 학생회 회칙안준이다. 이는 97년 이후 부재했던 회칙을 상정하여 인준함으로써 학생회 체계를 잡아 나가는데에 의의가 있다.

동양어대

25일(목) 5시에 교수회관 소극장에서 학생대표자회의를 연다.

이 날 안건으로는 △총 노선 및 집행부 인준 △한총련 대의원 탈퇴 △학사행정에 관련한 자성명서 결의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학단신

최창성 교수 태국에 한국학과 개설

우리 학교 최창성 교수(태국어)가 태국에 있는 부라파 대학에 한국학과를 개설했다.

최교수는 지난 안식년 기간동안 부라파 대학에 출강하던 중 우리 교포가 많다는 이점을 활용해 한국학과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태국어로 된 한국어 교과과정도 작성중이다.

최창성 교수는 이에 "다음 학기부에 첫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번 한국학과 개설이 양국의 국민유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용인, 위성방송 수신 및 케이블 시스템 개통

'위성방송 수신 및 케이블(CATV)시스템 개통' 시연회가 지난 9일(화) 용인배움터 시청각 교육원에서 열렸다.

위성방송 수신 및 CATV시스템 개통으로 용인배움터 교내에서 시청이 가능한 장소는 약61개소이며 시청채널과 추가수신가능방송은 각각 30여 여개이다. 또 모드(MOD)시스템의 구축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교재 병목현상 방지 △교재병목현상 방지로 효과적인 응용강의 △실시간 서비스로 거리, 공간, 시간 제약해소 등으로 연구·강의 능률이 증대됐다.

용인, 외대고시원 신입실원 모집

용인배움터 외대고시원 청람재에서는 99년 제1학기 신입 실원을 모집한다. 오는 25일(목) 6시 교양관 308호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을 진행한다. 시험과목은 △외무·행정고시반: 1·2학년- 영어, 3·4학년-영어,헌법 △사법고시반:1·2학년- 헌법, 3·4학년 -헌법, 민법 △기술고시반: 1·2학년-영어, 3·4학년-영어, △국사공일회계반: 1·2학년-영어, 3·4학년- 영어, 경제학이다.

용인 배움터 양군모 투쟁주체 이정일(서학·영어 4)군 만나

이 사 람

"양심수 군문제는 DJ의 인권탄압입니다"

"양심수 군문제는 현 김대중 정권의 인권탄압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는 3·1절 특사때 학생운동관련자는 석방하지 않는다든지,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들의 수배를 풀어주지 않는 데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우리학교 용인배움터 투쟁주체인 이정일(서학·영어 4, 제적)군은 현정권의 인권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양군모 회원은 80여명에 이른다. 용인배움터에도 성태제(97년 동구어대 학생회장), 한현호(97년 동아리연합회장), 배현석(현 공대학생회장)군 등 양군모 회원 세 명이 있다.

회원들과 관련해 그는, "회원들은 대부분 학생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구속, 또는 수배를 받아 이미 형량을 채웠거나 수배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0대의 나이임에도 입대해야하는 경우, 막 출소해 또 다시 군대를 가야하는 경우도 있구요. 정부차원의 조속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라고 전한다.

그는 또, "양군모 어머님들이 매일같이 국방부 출퇴근 투쟁, 법무부 항의방문, 국회청원 소위원회 결성을 위한 탄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쪽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양군모와 관련한 학내활동에 대해 "선전전, 대자보 작업, 서명운동 등을 통해 양심수 군문제의 본질인 정권의 인권탄압의 부당성을 알려내는데 주력하겠다"라는 김군은 "양심수 군문제는 정부가 지난 3~4년 동안 계속 자행해오고 있는 학생운동탄압과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문제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다. 장서윤 기자

서울, '학제개편·등록금 투쟁' 확대운위

언협인준, 사업계획 논의

서울배움터 확대운영위원회가 23일(화) 5시 대학원 210호에서 열린다.

전학대회에 상정될 안건을 인준받는 자리인 이번 위원회에는 보고안건으로 학제개편과 등록금 투쟁 등에 관한 3월 상황보고, 예결산 보고 등이 인준안건으로는 언론협의회 인준문제와 중앙집행부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고 인준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이현수(사회·신방4)군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제 개편 등을 저지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방과 보궐선거 실시해

신문방송학과 선거가 지난 19일(금) 실시되어 오기천(3)군이 당선되었다.

과회장의 군입대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오기천군은 총 재적인원 191명 중 61%의 투표율에 95%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오기천군은 과회장에 당선된 후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아 기쁘다"며 "앞으로 신방과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며 과활동을 할 것이고 계열제 철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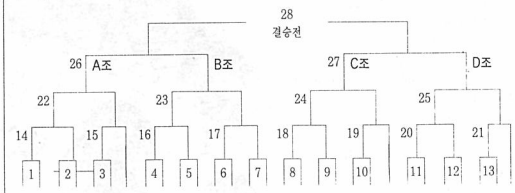
22일부터 제18회 모의 월드컵대회

서울배움터 축구부에서 주최하는 18회 모의월드컵대회가 22일(월) 시작되어 다음달 2일(금)까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전후반 각 20분씩 하루에 4경기 진행되는 이번 모의월드컵대회 개막식날에는 경기에 앞서 학생, 교직원간의 친선 시합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축구부 정준희군은 "재정적인 문제등 어려움도 있지만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과화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대 진 표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외대인을 위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에 와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받을수 있는 도움

- 개인상담 : 정서문제, 대인관계, 진로문제, 이성문제, 성격문제, 대학생활문제 등을 상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 집단상담 : 원만한 인간관계의 성장과 자기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상담 : 유학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 심리검사 :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성격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직업 개념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 해석해 드립니다.
- 자료실이용 : 취업, 대학원, 진학, 유학 등 진로에 관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국 대사관을 통하여 입수한 유학관련 자료들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 장 소 : 학생회관 2층

■ 이용시간 : 월~금요일 오전 10:00~오후 5:00
(점심시간 12~1시 사이는 제외)

▶ 상담이나 심리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심리검사를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후 4시 이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실시 안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3, 4월 중 적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 시 : 3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4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학생생활상담연구소(학생회관 2층)

주의사항 : 적성검사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미리 신청하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3.

학 생 생 활 상 담 연 구 소

외국어연수원생 모집

(야간 10주 대학(원)생 과정)

1. 모집학과 : 영 어

2. 교육기간 : 1999. 4. 12(월)~6. 18(금) 10주(제38기)

3.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17:30~19:20)

4. 문 의 처 : 연수평가원 연수부 (☎ 961-4174/5, FAX 962-0575)

1999년 학 반 기 대 학 생 과 정 일 정 표

학 기	교 육 기 간	원서교부 및 접수	비 고
제39기	'99. 8. 2~10. 8	'99. 6. 28~7. 16	
제40기	'99. 10. 11~12. 17	'99. 8. 30~9. 17	

1999. 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안내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예비군(대학원 석·박사과정 포함) 또는 재직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출입 신고

가. 입학, 복학, 편입학, 복수전공자, 재입학자 전입신고
사유발생(등록후) 14일 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전입신고를 마친다음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병사담당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직원은 직장예비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휴학 및 제적생(자퇴) 전출신고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본인이 전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전·출입 신고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양식 : 비상계획관실에 비치)
2) 학적변동 신고서(학적과 비치 : 복학생) 및 등록금 납입 영수증(신입생, 복학생)

2. 현주소 변경시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직원은 현주소 변경시 비상계획관실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규위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⑥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999. 3.

비상계획관장실

아르바이트 지원서 접수 안내

1999학년도 제1학기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사회경험 및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호를 부여코자 합니다.

1. 접수 기간 : 학기 중 수시접수
2.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 학생처
3. 대상 : 전 학년
4.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추천 우선권이 부여됨

1999. 3.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변 역글 - 외국 언론이 본 한국의 한자병용문제

한국어의 "비극"

한자부활에 뿌리깊은 저항

※이글은 일본산케이신문 3월 12일 금요일자 3면에 실린 글을 번역한 글입니다

한국에서 '한빛은행'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은행이 등장했다. 금융계의 재편으로 인해 지금까지 있었던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하여 생긴 은행이다. '한빛'이라는 말은 '하나' 또는 '크다'라는 의미인 '한'과 '光'을 의미하는 빛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한자로 쓴다면 '一光銀行' 이거나 '大光銀行'일 것이다.

그러나 한빛은 한자어가 아니라 한국고유의 말이다. 서울처럼 들어맞는 한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카타카나(일본문자인 '카나'의 하나로 외래어의 표기에 쓰임, 역자 주)로 밖에 쓸 수 없다. 덧붙여서 영어로는 'HANVIT BANK'라고 한다. 한국어의 발음에는 V음은 없지만 멋으로 'HANVIT'으로 했다. 일본인에게는 발음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최근 이러한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고유한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 이미 하나은행이나 보람은행 등이 있다.

일본에도 사쿠라(벚꽃)은행, 아사히(아침해)은행, 토마토은행이 있기 때문에 닮은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고유의 문자인 한글로 밖에 쓸 수 없다는 사실에서, 그러한 명명에는 민족주의 혹은 애국심이 강하게 담겨져 있다.

일본에서는 카타카나 혹은 히라가나(일본문자의 이름, 역자 주)로 표기로 하는 것은 멋스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또는 참미롭을 가지게 하는 의미 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히 한자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한국고유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은행이름뿐만 아니라 사람이름에도 김바위라던가 이무지개 박맑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정부가 한자부활을 선언하자 한글전용이나 한자병용이냐를 둘러싼 커다란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한글전용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가 이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한자부활반대론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한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한다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문자를 공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단호히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문서나 도로 표지판에 한자를 병기하고 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한자부활론의 논거로써는, 먼저 현대 한국어의 단어중 70%이상이 한자어라는 것이다. 원래 한자로 이루어진 말인데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또 한자를 쓰지 않으면 동음이의어의 구별이 곤란해진다. 예를들면 표음문자인 한글로만 쓰면 발음이 같은 '放火'와 '防火'의 구별을 할 수 없다. 혹은 한자의 조어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거 한다. 예를 들면 헌법(憲法) 민주주의부터 공해 해가족 고속도로 까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된 한자이지만, 한국만의 독자적이고 걸작인, 세쿠하라(sexual 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 역자 주)를 성희롱으로 만든 조어능력은 훌륭하지 않은가

한국어의 비극은 중국문화의 압도적인 영향으로 인해 다수의 고유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어에는 원래 '산'을 의미하는 말은 '뫼'였지만 '山'이라는 한자어가 들어와서 '뫼'가 없어졌다. 한국인은 지금 '산에 오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자를 대신하는 고유문자인 한글은 한국인의 민족주의 감정을 매우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자부활론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이 되어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의 압도적이 다수가 한자어이며 게다가 새로운 한자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문자를 한글로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궁극적인 애국은 앞에 소개한 '한빛은행'처럼, 한글로 밖에 쓸 수 없는 고유말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민족주의는 완성된다.

하지만 '한빛'은 좋다고 치더라도 '은행'을 고유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고생이 따른다. 극도의 언어민족주의자는 '돈을 맡기는 곳'이라고 하지만 왠지 번거롭다.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에 충실했기 때문에 '山'을 고유어인 '뫼'라고 읽게 하지 않고 '산'이라는 한자풍의 읽는 방법으로만 했다. 그러나 일본문화는 山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해도 고유어는 남겨 '야마'라고 읽게 했다. 한자의 '훈독(訓讀)'을 생각해 낸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화는 민족주의에 눈을 뜨자 한자의 배제에 눈을 향한 반면 일본문화는 이미 '야마'라는 고유어를 남기는 것으로써 민족주의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의 한자병용을 둘러싼 논쟁을 일본어와의 비교에서 생각하면 재미있다. 거기에는 중국문화에 대한 한일간 대응방식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일본문화는 주로 융통무애(融通無碍),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어떠한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움, 역자 주)하다.

장일영
〈동양·일본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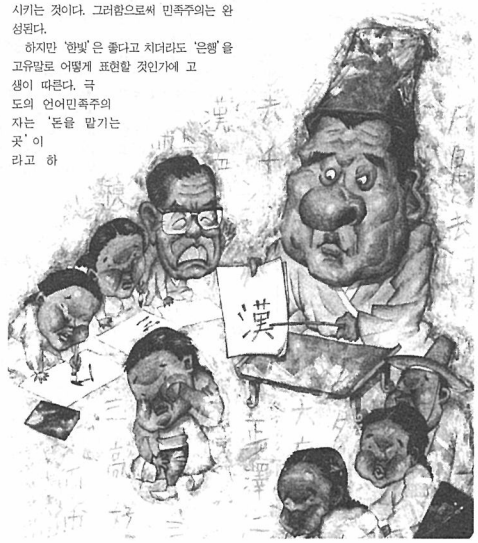


사진 수필

IMF가 우리나라에 착륙한 이후로 노숙자들, 구걸하는 사람들, 지하철 판매원들이 갑자기 늘어났고 그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승객들은 줄어들었다.

그만큼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겠지.

IMF 전에는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구걸했는데, 요즘에는 몸성한 사람들조차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서글퍼진다. 날이 갈수록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데 D는 이랫목이 뜨거워졌으니 조금만 참으면 윗목까지 뜨거워질 것이라고 한다.

대체 언제쯤이면 윗목까지 따뜻해질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지난 11일(목) 성북행 전철 안에서-

정효정 기자

음 악비평 - 90년대 댄스 음악을 해부한다

예견된 시나리오, HOT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후 한국 가요계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한다. 그것은 단순한 성인취향 음악(트롯, 발라드 등)만을 고집하던 가요계의 높은 장벽이 무너지면서 대중가요의 변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하여가'를 통해 보여준 음악적 시도는 예술성까지도 한층 높였다. '소방차'처럼 3인조로 구성된 이들이 랩이라는 장르와 한국식 점퍽 발라드를 접목시키면서 나왔을 때만 해도 그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는 예견되어 있었고, 그들은 국어가 가지고 있는 랩음악의 한계성을 적절히 극복하며 새로운 음악으로 90년대 초를 장식하였다.

과거 60년대 '비틀즈'가 보여준 양상을 '서태지와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가요계는 무심하게도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매력 중 음악성을 배제한 스타시스템을 이용한 상업성을 답습하여 촉진시켰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 이후 음악의 다변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3인조를 기본틀로 하여 음악그룹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이 보여주었던 시각적 효과에 비중을 두는 댄스그룹이 주를 이룬다. 이 시점에서 'HOT'의 출현은 어쩜 예견된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전사의 후예/HOT', 그 직접적인 가사전달과 힘있는 춤동작이 또래 청소년의 몸에서 나올 때 같은 세대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들의 음악에 같이 동참하였다. 그렇지만 '전사의 후예'가 표절되어진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그들의 추종자들은 주춤하였다. 이는 표절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고, '서태지'음악까지도 재심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HOT'가 그 명맥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MTV나 비디오 문화의 발달로 인한 시각적 홍보였다. 연령이 낮은 10대를 위주로 한 인기관리는 꾸준하게 음반이나 TV로 불러들이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서태지'이후 한국음악에 가졌던 기대감은 이제 댄스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음악적 성공을 걷을 수 없다(비디오형 가수)라는 전제로 둔갑하였고, 가수들은 노래연습보다 춤연습에 치중하였다.

'HOT'는 이를 촉진하는 건실한 틴이었고,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나이어린 청소년들이었다.

미국의 '뉴키즈온더블럭'이 가졌던 문제점을 유전받았고 그를 극복할 생각보다 자신들을 우상시 하는 또다른 또래들로부터 받는 찬사를 즐기는 듯 '전사의 후예'를 대처하기 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볍고 추상적인 사랑이야기와 단조롭고 친근한 음악으로 변신하여 인기그룹으로 성장하였다.

결국 '젝스키스'의 출현을 비롯하여 댄스, 인물, 미소년, 소녀 등의 댄스그룹의 폭발적인 형성은 대중매체마저 포용하였고, 가요순위 프로그램은 그들의 데뷔무대와 인기유지 무대로 변하여 그들의 생명력을 길게 하였다.

이러한 댄스그룹의 상업성을 인정한 방송국이나 예술매체는 신세대라는 용어 속으로 포함시켰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언더그라운드 그룹을 더욱 소외시키고 TV안에서 다른 장르의 음악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

하루에도 몇개씩 만들어지는 이 프로젝트 그룹들은 인기를 한번 끌고는 소속사나 동료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도 멀리 달아나 버린다.

한마디로 상품적 가치가 상실되면 음악그룹은 과감하게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더군다나 음악성이 없는 이들은 해체위기를 적절히 대처한 다른 대안을 찾을 길 없이 가을낙엽처럼 떨어진다. 건전한 음악문화를 기조로 한 댄스그룹(HOT, 젝스키스, SES, 핑클 등) 역시 결국 언젠가는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면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스턴트 문화에 우리들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멀리하고, 쾌락 중심적인 순간적인 사고에 조금씩 세뇌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문화개방의 시점에서 한국은 예술의 주체화를 주장하면서도 이처럼 결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음악을 하면 인기가 없고 사라지는 한국 가요계에서 언더그라운드만이 주체적 음악가들이 설 길이 되고 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가요계 진출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물론 댄스그룹도 있을 것이고, 록이나 랩같은 부류의 그룹이나 가수지망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정의나 공부없이 단지 한다는 것, 형식에 치우치고 인기를 그 목적으로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가수를 하나의 직업이전에 작가적 정신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가로써 받아들이고,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이 지금 20세기 말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음악일 것이다.

김정영
〈사월문학반, 자연, 화학 4〉

나는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나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4월2일(금)에는 '미국의 전쟁책동 · 경제침탈 · 교육침탈 분쇄와 주한미군 철거 · 군사교육 제정확보를 위한 4 · 2 한총련 총궐기'가 열립니다
4월3일(토)에는 '미국의 경제침탈 · 전쟁책동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4 · 3 민중대회'가 열립니다
이 아이가 꿈꾸고 있는 세상, 모든 이들의 염원입니다
4 · 2, 4 · 3일에 그 꿈을 향해 뛰어나가 보십시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